

# 한국 YWCA

2020년 9·10월호  
SEP · OCT Vol.569

## 제24회 YWCA가 뽑은 좋은 미디어콘텐츠상

6:52/21:00

#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 기간: 10월 30일(금)까지

### 추천 대상

TV 프로그램(지상파, 종편 포함)  
뉴미디어 콘텐츠

### 추천 방법

구글폼에서 추천서 작성하여 제출  
YWCA홈페이지 참조(www.ywca.or.kr)

### 추천 내용

YWCA 목적인 '정의, 평화, 생명,  
청년'의 가치를 잘 표현한 작품

★ 'YWCA가 뽑은 좋은 TV프로그램상'이 'YWCA가 뽑은 좋은 미디어콘텐츠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한국YWCA

02.774.9702

|                  |                  |                 |                  |                 |
|------------------|------------------|-----------------|------------------|-----------------|
| 강릉 033.651.1385  | 대구 053.652.0070  | 성남 031.708.2503 | 원주 033.742.6090  | 청주 043.265.3700 |
| 거제 055.682.4950  | 대전 042.254.3035  | 세종 044.865.2432 | 의정부 031.853.6332 | 춘천 033.254.4878 |
| 경주 054.772.8141  | 동해 033.531.3007  | 속초 033.635.3523 | 익산 063.857.8910  | 충주 043.848.3240 |
| 고양 031.919.4040  | 마산 055.246.8746  | 수원 031.252.5111 | 인천 032.424.0524  | 통영 055.646.2547 |
| 광명 02.895.1966   | 목포 061.242.1611  | 순천 061.744.7990 | 전주 063.224.5501  | 파주 031.945.5998 |
| 광양 061.762.0012  | 부산 051.441.2221  | 안동 054.854.5481 | 제주 064.711.8322  | 평택 031.651.7701 |
| 광주 062.609.1300  | 부천 032.668.9700  | 안산 031.483.6536 | 제천 043.645.2580  | 포항 054.274.4444 |
| 김해 055.332.6000  | 사천 055.833.2344  | 안양 031.455.2700 | 진주 055.755.3463  | 하남 031.793.7771 |
| 남양주 031.577.7762 | 서귀포 064.762.1400 | 양산 055.367.1144 | 진해 055.542.0020  | 군산 063.462.4491 |
| 남원 063.632.7002  | 서울 02.3705.6000  | 여수 061.654.2161 | 창원 055.283.9488  |                 |
| 논산 041.736.7393  | 서천 041.951.6400  | 울산 052.247.3520 | 천안 041.575.0961  |                 |

**특집① YWCA 아카이브 문열다**  
YWCA를 기록하고 공유하고 확산하다  
인터뷰 : 안대진 아카이브랩 대표  
한국YWCA 초기역사\_지역YWCA 조직

**특집② 2020 YWCA 한민족여성평화순례 한라에서 백두까지**  
홀로 걷는 평화순례  
사진으로 보는 홀로 걷는 평화순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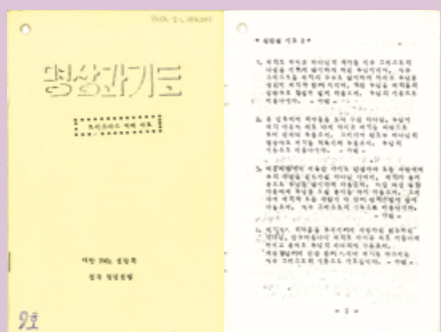
**사진으로 보는 '전국동시다발기후위기비상행동'**

**여성**  
가사노동자는 필수노동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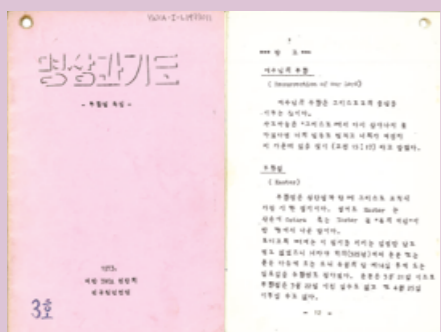
**미디어와 사회**  
유튜브 그리고 가짜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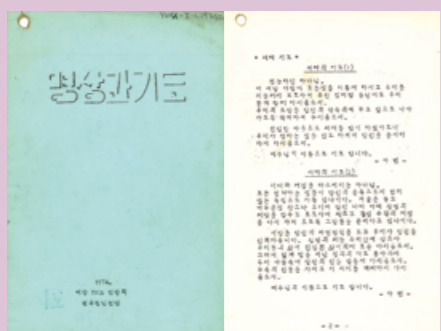
# “여성 스스로 주체가 되어 청년들에게 새로운 생의 양식을 갖도록 돕다”



1972년 <명상과 기도>



1973년 <명상과 기도>



1974년 <명상과 기도>

YWCA는 기독교 신앙을 생활에 반영시켜 신앙과 행동을 일치시킨 기독교청년운동체이자 사회개혁을 위한 기독교운동체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운동으로 집약되고 있다.

1960년대는 전 세계적으로 교회운동과 신학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 시기로, 1970년, 1973년 전국대회에서 YWCA의 평신도 운동은 계속해서 프로그램 중점으로 채택되었다. '몸과 마음, 삶으로 드리는 기도가 선교'라는 새로운 선교신학은 “여성들 스스로 주체가 되어 청년, 청소년들에게 바른 가치관, 새로운 생의 양식을 가지도록 돕고 정의와 평화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노력해야 한다”는 것으로 YWCA 활동과 사명을 정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선교신학은 기독교운동을 추진시킬 수 있는 힘이 되어 기독교에 대한 일반사회와 청년들의 이해와 관심을 고조시켰다.

1950년대 중반 청년YWCA가 신설된 후 1960년대로 넘어오면서 8개 클럽으로 시작하여 1971년에는 38개로 왕성한 활동을 벌였다. 기독교운동 정체성에 따라 청년YWCA도 각종 행사모임을 통한 예배와 예배의식연구, 종교연구, 예배워크숍, 명상, 기도문 보급, 찬송가배우기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비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를 전했다.

<명상과 기도>는 명상글과 기도문이 담긴 책자로 1972년(1~9호), 1973년(1~8호), 1974년(1~6호)까지 발행되었다.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등 절기에 맞춘 예배와 기도내용과 청년을 위한 기도, 병자들을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출처: 한국YWCA 80년사, YWCA아카이브)

## 2020. 9. 10 한국YWCA



### 표지이야기

2020 한민족 평화순례 한라에서 백두까지 '홀로 걷는 평화순례'에 참여한 총주YWCA 본부, 부속시설 실무활동가가 스트링아트로 표현한 'YWCA PEACE'와 평화의 조각보. 떨어져 있는 뜻을 실로 엮어 모양을 완성하는 스트링아트처럼, 지금은 분단되어 있지만 한민족으로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하며 만든 작품이다.

### 2020년 10-11월 주요일정

- 10월 22일 (사)한국YWCA연합회 임시총회
- 10월 31일 청소년이 만드는 지속가능한 세상 본 대회
- 11월 11일 YWCA-YMCA연합예배
- 11월 16일~ 한라에서 백두까지 온라인 사진전
- 11월 17일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
- 11월 24일 씩크머니 우수강의 경진대회

### 제56권 제5호 통권 569호

2020년 10월 15일 발행 (등록번호 마00096)

발행 (사)한국YWCA연합회  
 발행인 원영희  
 편집인 유성희  
 편집 박은실·정서연  
 발행처 서울 중구 퇴계로18길 77 (사)한국YWCA연합회  
 디자인 굿플러스커뮤니케이션즈(주) 02)6080-9858  
 인쇄 (주)신사고하이테크 031)989-0800  
 전화 02)774-0230 | 팩스 02)774-9724  
 홈페이지 www.ywca.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ywcaorea  
 구독료 연간 2만원 (총 6권)  
 계좌번호 농협 386-17-000052 한국YWCA연합회



### 한국YWCA 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 목 차

- 04 **이달의 생각** 사랑한다면 Y처럼 | 조은영
- 05 **말씀묵상** 한국YWCA를 위한 정오 기도

#### 특집① YWCA아카이브 문열다

- 06 ① YWCA를 기록하고 공유하고 확산하다 | 윤수정
- 08 ② 인터뷰 : 안대진 아카이브랩 대표 | 편집실
- 10 ③ 한국YWCA 초기역사·지역YWCA 조직

#### 특집② 2020 YWCA 한민족여성평화순례 한라에서 백두까지

- 12 ① 홀로 걷는 평화순례 | 최수산나
- 14 ② 사진으로 보는 홀로 걷는 평화순례

- 18 **평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한미 관계 | 고유경
- 20 **기후위기**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탈육식의 선택 | 이윤숙
- 22 **사진으로 보는 '전국동시다발기후위기비상행동'**
- 24 **여성** 가사노동자는 필수노동자다 | 김난주
- 26 **이슈** 사회적연대에 기초한 건강보험제도 운영을 위한 과제 | 안정희
- 28 **미디어와 사회** 유튜브 그리고 가짜뉴스 | 김준경
- 30 **청년토크** '코로나블루' 부숴버려! | 대학·청년Y

- 32 **이달의 현장①** 대전·대구·안산YWCA, 사단법인으로 재도약하다 | 조직혁신지원국
- 34 **이달의 현장②** 키다리, 다함께 ZOOM IN! | 천유란
- 36 **이달의 현장③** 연합회 실행위원 온보딩 프로젝트 중간보고회 | 장수빈
- 38 **이달의 현장④** 전남협의회, 지역 간 연대로 이웃의 어려움을 돌보다 | 김은숙
- 39 **이달의 현장⑤** YWCA성폭력시설장워크숍 | 편집실

- 40 **이달의 포커스** 기후위기와 농민기본소득 | 차홍도
- 42 **크리스천의 눈으로 보는 문화** 싹뻗도 명랑하면 사랑받나요? <보건교사 안은영> | 김신애
- 44 **연합회 소식**
- 46 **회원YWCA 소식**

# 사랑한다면 Y처럼...



조은영  
한국YWCA연합회 부회장

Y와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이 사랑이 이렇게 오래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선배의 소개로 우연히 Y를 만나게 되었는데 순식간에 매료되기는 어려웠다. 그저 익숙한 집밥 같은, 꿀을 수 없는 양질의 편안함 같은 매력이 있었다.

하지만 집밥이 그렇듯 유혹적인 끌림이 없어 젊은 내 심장에 불을 지피며 훅하고 빠져들 수 있게 하지는 못했고,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꿀고 있는 열정을 채워주지도 알아주지도 못한 Y가 야속하게 느껴졌다.

Y는 이런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자신의 모습과 방식대로 은근하지만 끊임없이 내가 자신과 함께할 수 있다고 말해주었다. Y는 사랑에 대해서는 할 만큼 해보았다는 자신감을 슬며시 내게 내비치곤 했다. 뭔가 자랑할 만한 경험과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나의 열망을 알고 있으며 자신이 이 끌어갈 수 있다는 듯이 확신에 찬 모습으로 다가오곤 했다. 하지만 부러 그런 자신의 화려한 과거를 드러내지는 않았다. 그러면서도 단아하고 절제된 매너로 나를 볼 때마다 반가운 몸짓을 보였다.

어쩌면 Y가 걸어온 사랑의 길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취와 결과를 남겼을지는 모르지만 Y 자신이 그 길을 걸어오기까지 그다지 녹록했던 것은 아닌 것 같았다. 그래서인지 경륜을 통해 배어 나오는 느긋한 지혜와 배려의 몸짓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나는 사랑한다면 좀 더 열정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더 열렬히 표현해주고 몸을 내던져 달라고 했다.

Y는 내게 조금할 필요는 없다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나아갈 바는 넓고 길다고... 그리고 때로는 그 길 위에서 우

리와 같은 사랑의 사람들을 만나 벽찬 감격으로 몸을 내던져야 할 때가 있을 거라고... 때로는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길 위에 홀로 답답하게 나아가야 할 수도 있다고... 우리는 그런 담대한 사랑을 하게 될 것이라고...

나는 그 Y와 20년째 열애 중이다. 100세를 앞둔 Y는 여전히 내게 매력을 발산하며 새롭게 탈바꿈하고 있다. 몸집을 가다듬으며 100년이란 긴 시간 동안 바뀌어 온 세상에 맞추어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있는 것이다. 노련한 Y도 새로운 100년은 이제껏 살아보지 못한 세상이라, 조심스럽지만 그 동안의 경험과 지혜를 총동원하여 매무새를 단장하고 숨을 고르고 있다.

그렇게 일신우일신 하는 성실함으로, 새로운 변화의 시기에 그동안 쌓아 올린 자랑스러웠던 자신을 내던지고 처음으로 돌아가 거듭나려는 지혜를 발휘하는 Y. 나는 그러한 Y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Y가 그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얻어 매 순간을 살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베드로전서1:22-25)”**

사랑한다면 Y처럼!

#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한국YWCA’를 위한 정오 기도

한국YWCA는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해결되고, 올해 진행될 연합회와 회원YWCA의 재구조화 여정, 그리고 한국YWCA회관의 변화 과정을 위해 2월 21일(금)부터 9월 20일(일)까지 기간을 정해두고 30주차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한국YWCA’를 위한 정오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가 겪었던 그 때가 떠올라 마음도 아프고 어찌해야하나 생각만 하다가” 사과즙을 나누신 YWCA 자매의 편지에는 “정말 Y가 이렇지”, “이게 살아있는 공동체 사랑이지”라는 문구가 적혀있었습니다.

울 때 같이 울고 웃을 때 같이 웃었던 YWCA, 우리가 어땀한 공동체였는지 다시 기억하고, 기도하고, 분별하고, 더 낮아지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소중한 하루하루를 이어가겠다는 다짐은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려운 우리 모두에게 한 번 더 일어설 용기를 갖게 합니다.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지 않고 환자들이 회복되도록, 수해와 태풍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의 터전이 조속히 복구되도록, 코로나로 인해 돌봄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제도적 실질적 도움이 마련되도록, 기후위기 대응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YWCA가 마음을 모으고 힘쓰도록, 한국YWCA 연합회와 53개 회원YWCA가 건강한 시민사회의 주체들을 세워 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한국YWCA회관 공사를 끝까지 안전하게 마치게 하시고 정의, 평화, 생명을 나누는 공간이 되도록 매일 정오에 함께 했던 기도들이 응답되길 바랍니다.

### | 공통 묵상 말씀 |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예레미야 31장 3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빌립보서 1장 27-28).

### | 공통 기도제목 |

-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고 환자들이 조속히 회복되게 하소서.
- 수해와 태풍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의 터전이 조속히 복구되게 하소서.
- 코로나로 인해 돌봄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제도적 실질적 도움이 마련되도록 YWCA가 힘쓰게 하소서.
- 기후위기 대응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YWCA가 마음을 모으고 힘쓰게 하소서.
- 연합회와 53개 회원YWCA가 건강한 시민사회의 주체들을 세워 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 한국YWCA회관 공사를 끝까지 안전하게 마치고 정의, 평화, 생명을 나누는 공간이 되게 하소서.

# YWCA를 기록하고 공유하고 확산하다 YWCA아카이브



윤수정  
연합회 아카이브 프로젝트매니저

## YWCA아카이브 사명

한국YWCA 창립 100주년을 준비하며 작년부터 준비해 온 YWCA 온라인 기록보관소인 ‘YWCA아카이브’를 2020년 9월 1일(화) 오픈하였다.

아카이브란 기관의 공문서, 사문서 등 기록물을 보관하는 곳으로 ‘YWCA아카이브’는 온라인 상에서 한국YWCA의 기록물을 모아서 보관하는 온라인 도서관과 유사한 개념으로 생각하면 된다.

YWCA아카이브의 사명은 ‘한국YWCA의 역사적 위상과 유산적 가치의 공유와 확산’이다.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질곡을 함께 지고 헤쳐나간 수많은 한국YWCA 역사 기록들을 아카이브에 게시해 YWCA를 알리고 그 가치와 정신을 공유하고자 한다.

YWCA 기록물들을 통해 YWCA의 존재 이유, 어려웠던 시대 가운데 더욱 소외된 여성과 약자들을 위한 활동뿐만 아니라 그 활동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원동력과 리더십, 협력의 손길 등도 알 수 있다. 또한 YWCA 활동을 통한 법·제도의 변화 등 거시적으로 드러나는 결과물뿐만 아니라 인간 삶의 변화 등 미시적인 부분들까지도 공유하면서 YWCA 운동의 가치와 의미, 그것을 이루기 위한 열정과 리더십들을 만날 수 있다.

## YWCA아카이브 구성

YWCA아카이브는 기록, 콘텐츠, 회원YWCA, 소개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1) 기록은 검색하기(일반검색, 고급검색), 주요기록(주창활동, 교육, 지역운동), 신착기록으로 구성되어 있고 (2) 콘텐츠는 현재 6개의 콘텐츠가 개발되어 수록되어 있다. 콘텐츠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탑재할 예정이며 회원YWCA의 주요 활동도 콘텐츠로 개발할 계획이다. (3) 회원YWCA는 앞으로 채워져 갈 공간이다. 현재는 연합회에서 보관한 회원YWCA 관련 기록물들이 소수 등록되어 있지만, 향후 모든 회원YWCA의 기록물들이 함께 탑재되어 ‘한국YWCA아카이브’로 확장되리라 기대한다.

(4) 소개 메뉴에서 중요한 기능은 ‘기증하기’이다. YWCA에서 오랜 기간 활동하신 선배 지도력들이 보관하고 있는 YWCA 활동 관련 기록물들을 시스템을 통해 직접 기증하는 기능이다. YWCA 활동 기록물들은 그 자체로 중요한 사료이기 때문에 소장하고 있는 YWCA 활동 관련 기록물들의 적극적인 기증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 YWCA아카이브에 기록이 올라오기까지

이번 YWCA아카이브에는 연합회에서 보관하고 있던 수많은 기록물 가운데 약 1만여 건을 선별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시스템에 탑재하였다.

실물 기록물을 온라인 시스템에 탑재하는 과정을 간단히 소개하면 기본계획수립(컨설팅) → 가정리 → 기록물 선별 → 교육 → 목록화 → 스캔 → 시스템 탑재 과정이다. 연합회는 보관하고 있는 기록물들이 너무 많아서 가정리를 먼저 진행하고 그 후에 데이터베이스에 구축할 기록물을 선별하였다. 이 과정을 처음부터 기관에서 스스로 하기는 어렵기에 외부 전문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어 아카이브 구축과정을 진행하였다.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드디어 2020년 9월 1일, 여권통문의 날에 ‘YWCA아카이브’ 시스템을 오픈하게 된 것이다.

## YWCA아카이브 오픈식

이번 오픈식은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 최소한의 인원만 현장에 참여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한 실시간 중계로 전국YWCA 회원 180여 명이 함께 참여해 많은 회원들이 오픈 채팅방에 축하 메시지를 남겨주었다. 오픈식은 이은영 연합회 부회장의 사회로 원영희 연합회 회장 인사말, 김재남 청와대 시민사회수석과 정진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상임 이사장의 축사영상, 안대진 아카이브랩 대표의 아카이브 구축 보고 및 시연, 이유럽 서울YWCA 회장, 윤정란 숭실대 교수, 유성희 연합회 사무총장의 축하 및 기대나눔, 윤수정 아카이브팀 매니저의 향후 계획 공유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아카이브 구축 작업을 하면서 YWCA 초기 역사자료

를 많이 발굴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6.25 전쟁, 화재, 이사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보관하던 문서들을 분실하거나 소실되어 역사서 외에는 초기 역사와 활동을 파악할 수 있는 기록물이 거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아카이브 구축 작업이 연합회와 더불어서 53개 회원YWCA에게 더 절실하게 필요한 작업이라 생각한다. 기록이 없으면 우리의 정확한 역사를 알 수가 없다.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라는 말처럼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정확한 기록이 있어야 객관적으로 균형 있는 평가를 할 수 있다.

아카이브 오픈식에서 원영희 연합회 회장의 “9월 1일 YWCA아카이브 오픈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라는 표현처럼, 98주년을 맞이한 한국YWCA연합회와 광주YWCA, 서울YWCA, 대구YWCA가 먼저 한국YWCA의 기록물 보관과 공유를 위한 공간 만들기를 시작하였다.

53개 지역에서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존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 지금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회원YWCA들이 만들어가는 발걸음들이 한국YWCA 전체 역사를 만들어가는 초석이라 믿으며, ‘YWCA아카이브’가 그 크고 작은 발걸음들의 기록이 모여지는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래서 한국YWCA 100년을 넘어 미래세대와 YWCA의 목적과 운동의 가치, 의미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기록 공유의 장이 되기를 소망한다.

## 유튜브 채팅방 축하 메시지

변화하는 세상, 그 가운데 한국YWCA가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_saramryu**

기록하고 기억하는 것 그 역사에 함께 할 수 있어 좋습니다. **\_이혜정**

여성의 교육권과 직업권, 참정권을 주장하며 근대적 여성운동의 역사적 기원을 만든 여권통문의 날에, 아카이브를 오픈해서 더욱 뜻깊습니다~ **\_RHS**

귀한 기록을 소중하게 기억하는 역사의 보고 그 문을 활짝 열게 된 것 감사하고 축하합니다. **\_양선희**

무엇이든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100년이란 아득한 긴 시간을 역사와 함께한 YWCA 멋지고 대단하고 앞으로의 100년의 역사의 기록이 기대됩니다. **\_김애영**

미래의 빛을 향해 나아가는 YWCA아카이브, 멋진 오픈을 마음 모아 축하합니다~ **\_세종YWCA**

정말 꼭 필요한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_MIJung Yang**



YWCA 98년의 역사 기록 디지털 저장소인 'YWCA아카이브'가 2020년 9월 1일(화) 문을 열었다. 9월 18일(화) 'YWCA아카이브' 기록관리 컨설팅과 디지털 아카이브 제작을 총괄한 아카이브랩 안대진 대표를 만났다.

**안대진 대표님과 아카이브랩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기록하는 '게릴라 아키비스트'로서 2016년 동료 연구원 2명과 '대체로 무해한 아카이브 연구소 아카이브랩'을 창업했습니다. 최근 아카이브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시스템 개발에 터무니없이 높은 견적을 내는 경우가 많은데 아카이브랩은 '해를 끼치지 않는' 적정기술을 가이드하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과거부터 금기시되는 기록물을 목숨을 걸고 사수하는 '게릴라 아키비스트'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런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마이내'하지만 중요한 다양한 기록들, 특히 민간의 여러 영역을 기록화하고자 합니다.

**아카이브랩은 민간영역의 아카이빙 활성화를 목표로, 서울시NPO지원센터와도 '비영리조직을 위한 아카이빙 자문프로그램'을 진행하셨습니다. 민간영역, 특히 비영리조직의 아**

**카이빙에서 어떤 측면에 가치를 두시고 작업을 이어가시는지, 민간에서 아카이빙이 왜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궁금합니다.**

미국 국립기록청(NARA) 앞에 '민주주의는 여기서 시작된다(Democracy starts here)'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국가와 제도 그리고 그 안에서 인간의 행위를 기록한 기록물이 민주주의의 기틀을 구성하는 가치를 지닌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도 '기록이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는 신념으로 국가 기록원 등에서 공공영역의 다양한 기록물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록에 비해 민간기록을 남기고 보존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한쪽의 입장만 부각 되어 균형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4대강 관련 정부기록은 많이 보존되었으나 시민사회 활동 아카이빙 작업은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공공뿐 아니라 소수자를 포함한 민간영역의 기록들이 포괄적으로 모아져야 역사적인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영역에서 '기록으로 남기고, 보여주고, 목소리를 드러내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활동가 아키비스트'라는 개념이 많이 보편화 되었는데, 활동가 아키비스트들은 진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포착하고 맥락을 잘 보존하려고 합니다. 저도 근무했던 연구소에서 4.16 세월호 참사 당시, 진도에 부스를 차리고 상주하면서 그 현장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세세한 내용까지 기록하였습니다. '있는 그대로' 역사에 남기고자 했습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도 이미 과거가 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건들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국YWCA는 YWCA 100주년을 준비하며, 유무형의 'YWCA 100주년 아카이브'를 구축하고자 2019년 4월에 YWCA 역사관 '이제'를 개관하고, 올해 9월 디지털 'YWCA 아카이브'를 열었습니다. 아카이브랩에서 담당하신 YWCA 아카이브 구축 과정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100년의 역사를 지닌 YWCA의 자료를 정리하는 일이 쉽지 않았으나, 근현대사를 아우르는 단체가 지닌 무게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카이브 컨설팅을 통해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가정리, 스캔, 목록화 등을 진행했습니다. 온라인에서 기록물을 찾아볼 수 있도록 스캔하고 각 기록물에 이름을 붙여주는 목록화 작업과 함께, 거의 100년이 되어 바스라진 문서들을 보존할 수 있도록 비닐에 담은 작업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또 저희의 핵심적인 역할은 '오픈소스'를 활용하여 아카이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인데, '오픈소스'를 활용하면 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영역에 보급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브를 자체 관리할 수 있도록 아카이브 활용 교육도 진행하였습니다.

**한국YWCA는 53개의 회원YWCA가 전국에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각 지역에서 YWCA 역사 기록이 생성되고 있다는 뜻일텐데요, 아카이빙을 위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번에 YWCA 기록물들을 보면서 'YWCA가 이렇게 엄청

난 일들을 해왔구나'라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YWCA 업적에 비해 알리고 공유하는 작업들이 부족했던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YWCA는 지금도 놀라운 수준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드러나게 해주는 것이 '기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YWCA 활동가들이 YWCA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자부심과 함께, 활동 결과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사명의 일부로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업무과정 속에 기록을 포함시키는 것도 업무효율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또한 기록을 남길 때에는 후대 사람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맥락, 반대쪽 입장 등도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활동가들이 기록물로 생성되는 자료들을 관리할 때 중요하게 고려할 점과 비영리 조직의 아카이빙 과정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활동가들이 기록물 관리 교육을 받고 <기록물 관리 가이드>에 대해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록관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시각을 갖고 활동의 맥락을 보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록관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비영리 조직의 아카이빙을 지원하는 조직은 아쉽지만 거의 없습니다. 예전에 아름다운 재단, 서울시, 삼성장학재단, SK 등에서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아카이브 구축을 지원했고 일부 지자체에서 기록문화도시 등 지자체 특성화 주제로 아카이브 구축 사업을 진행한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앞으로 비영리 조직의 아카이브 구축을 지원하는 곳이 많아질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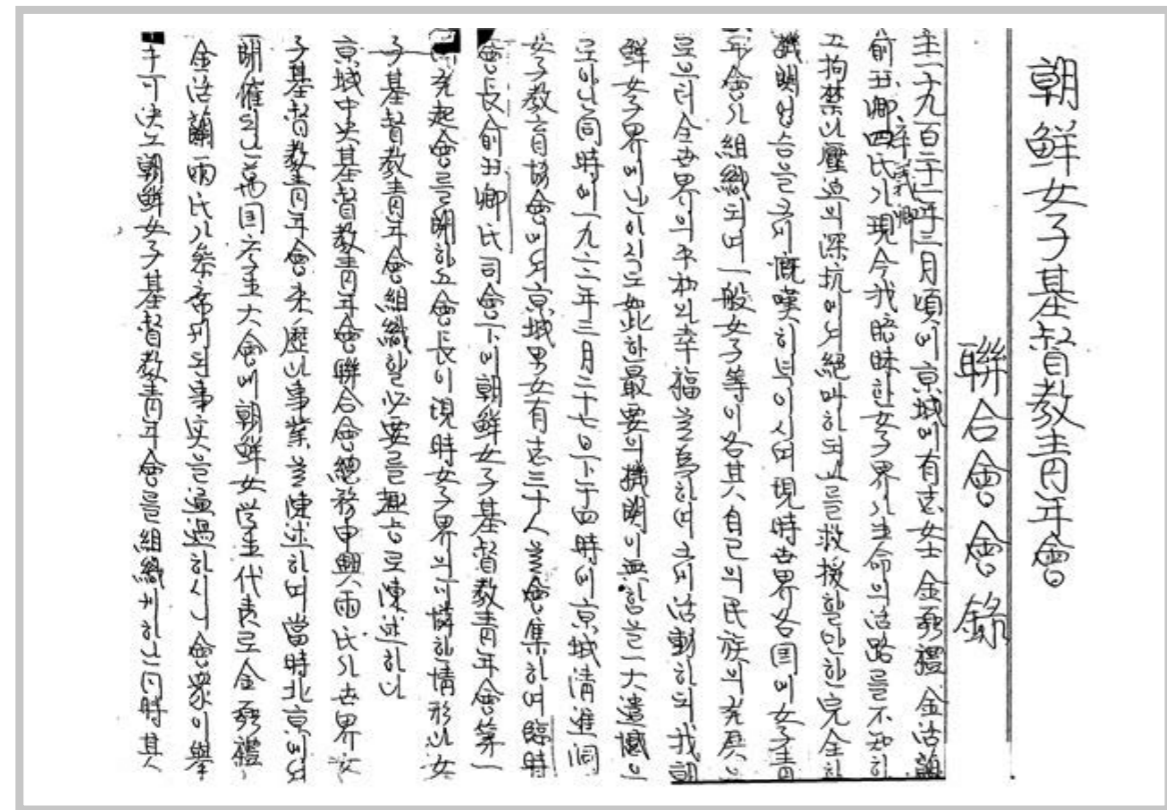
**끝으로, 대표님께서 아카이브의 사명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아카이브의 사명은 '보존기록을 통한 사회적기억 만들기'입니다. 기억은 왜곡되는 경우가 많은데 기록을 남겨두면, 진실과 왜곡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요?

# 한국YWCA 역사, 지역과 함께 이루어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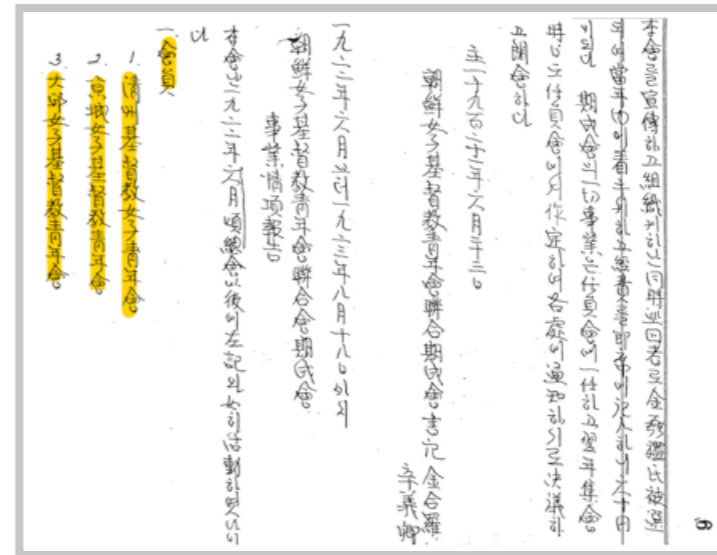


한국YWCA연합회를 비롯하여 광주YWCA, 서울YWCA, 대구YWCA는 창립 100주년을 앞두고 있다. 이곳들은 한국YWCA 100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100년의 비전을 준비하며 초기역사를 정리하고 있다. 한국YWCA 기록을 통해 '암매한 조선 여성들이 깨어날 때 조국의 독립에 큰 힘을 보탬 것'이라는 김필레, 김활란, 유각경 선생의 신념으로 연합회와 지역YWCA가 창설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 출처 YWCA아카이브)



제목\_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 발기회의록 (1922년 3월)  
 생산년도\_ 1922  
 생산자\_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

내용\_ 1922년 3월 27일, 임시회장 유각경의 사회로 제1회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 발기회가 열렸다. 이때 “여성사회가 암매(暗昧)한 가운데 생명의 활로를 알지 못하고 구금(拘禁)과 압박(壓迫)의 깊은 구렁에서 부르짖되 이를 구원할 만한 완전한 기관이 없음을 개탄하면서 세계 각국에 조직되어 일반 여성들이 각기 자기의 민족의 발전으로부터 전세계의 평화와 행복을 위하여 크게 활동하는 YWCA를 조직”하기로 결의하였다.



제목\_ 1922년 사업보고 지방순회와 회원현황 내용  
 생산년도\_ 1923  
 생산자\_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

내용\_ 1922년 6월부터 1923년 8월 18일까지 진행된 활동 보고서 중 지방순회와 회원현황 관련 내용. 연합회가 먼저 창설되자 지방조직을 만들기 위해 김필레는 순회총무로서 40일 동안 마산, 부산, 대구, 청주, 선천, 평양, 진남포, 해주, 재령, 개성, 인천, 함흥, 원산, 목포, 경성, 광주 등 17곳을 순회하면서 각 지방과 여학생Y를 창설하고 연합기성회에 가입하게 독려하였다. 1922년 당시 조선YWCA연합회에 가입된 지역Y는 광주, 서울에 이어 대구, 선천여자기독교청년회가 있었고, 1923년 지방 7곳과 13개 학교에 학생Y가 신규가입하여 회원 수가 전국 2천여 명에 이르렀다.



제목\_ 중앙일보-YWCA60년(YWCA조직)  
 생산년도\_ 1982  
 생산자\_ 중앙일보

내용\_ 지방YWCA가 지역 단위로 YWCA연합회에 가입했다. 1922년 11월 광주를 선두로 지방조직이 확대되었다. 서울YWCA는 12월, 그 다음해에 대구YWCA가 조직되었다. 이후 각 지역에서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을 위해 YWCA가 설립되어 오늘날 53개 YWCA가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 홀로 걸으며 화해와 회복으로 나아가다

## 최수산나

연합회 중점운동국 부장

올해 'YWCA 한민족 여성평화순례 한라에서 백두까지'의 주제는 '상처 치유와 회복'이다. 한국전쟁 70년의 해를 맞은 한반도는 여전히 분단된 땅과 이산가족들, 분단 체제와 이념 갈등의 희생자들, 제재와 재해로 고통받는 북한의 주민들을 마주하고 있으며 양극화로 분열된 남한 사회 등 아픔 속에 있다. 이 땅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염원하는 이 평화의 여정에 YWCA 회원들이 순례의 길 동행자로 함께 나섰다.

한국YWCA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기획한 'YWCA 한민족 여성평화순례 한라에서 백두까지'는 한국YWCA 창립 95주년인 2017년 한라산에서 시작해 2018년 지리산을 거쳐 2019년 태백산에 올랐다. 평화순례단은 해마다 남에서 북을 향해 산을 오르며 '통일씨앗'을 뿌리고 100주년이 되는 2022년 백두산 정상에 남북한과 해외동포 여성들이 함께 오르기를 기도하고 있다.

98주년인 올해는 평화순례단이 설악산을 오를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순례의 의미를 성찰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이에 올해 여성평화순례는 '홀로 걷는 평화순례'와 '함께 이어가는 평화의 길' 그리고 '온라인 사진전'으로 변경되어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 일상에서 '홀로 걷는 평화순례'

9월 15일(수)부터 23일(수)까지 진행된 '홀로 걷는 평화 순례'는 창립 98주년을 의미하는 98명의 평화순례단을 포함하여 총 36개 회원YWCA에서 약 350명의 참가자들이 참여하였다. 참가자들은 순례의 상징물품(손수건, 리플렛, 뱃지, 깃발) 중에서 한 종류 이상을 착용하고, 각자 한 줄 기도문과 걷기 거리를 기입한 내용을 포함하는 인증샷을 개별 혹은 회원Y 별로 제출하였다. 참가자들은 '자연 속에서 만나는 생명과 평화', '차별과 차이를 넘은 평화', '모든 생명의 평화로운 공존', '남과 북의 자유로운 왕래', '우리 손으로 이루는 평화', '온전한 화해와 치유' 등의 기도문을 나누었고 '개 마고원 별판을 뛰고 싶다', '외할머니 고양 땅에 대신 찾아가

고 싶다' 등의 내용도 눈에 띄었다. 한 자리에 함께 할 수 없기에 더욱 절절한 마음으로 평화의 연대를 확인하며 다짐의 기도를 드렸다.

### 걷기는 성찰의 시작이다

10월 15일(목) 유튜브로 진행된 '함께 이어가는 순례의 길'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순례 영상과 참가자들의 나눔, YWCA 여성평화선언문 낭독, 올해 주관단체인 광주YWCA로부터 내년 주관인 서울YWCA에게 깃발을 전달하는 기념식 등을 진행했다. 11월 16일부터는 온라인 사진전이 진행된다(www.ywca-peacegallery.or.kr).

올해 순례에는 일상의 걷기와 순례의 의미가 결합되었다. 걷기는 성찰의 시작이다. 우리는 걸음을 통해 우리의 조급함, 어리석음과 무더짐, 미움과 상처를 내려놓고 침묵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할 수 있다. 홀로 조용히 절대자와 만날 때, 나를 둘러싼 어그러진 관계들을 용서하고 화해하게 된다. 가족, 동료, 이웃은 물론, 자연,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화해의 과정을 경험한다. 라틴어 conciliare에서 유래한 화해(reconciliation)는 '연합하다, 모이다, 함께 걷다'의 뜻을 지닌다. 남과 북의 화해는 용서와 이해를 넘어 공동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에 있다. 미 부시 대통령은 한때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지만, 이제 우리는 한반도를 '평화의 축'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다. 한반도 종전을 꿈꾸는 2020년, YWCA 회원들의 기도와 순례의 여정이 평화체제의 초석이 되기를 염원한다. 

## 2020 YWCA 여성평화선언문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요한계시록 21장 5절)

1950년 한반도에서 발발한 한국전쟁은 남과 북에 참혹한 상처와 고통을 남겼고, 완전히 종식되지 못한 채 70주년이 되었습니다. 분단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깊은 갈등과 증오를 낳았고, 한반도를 대결과 분리의 질서 속에 가두어놓았습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남북의 자주적인 해결에 합의한 6·15 남북공동선언은 올해 20주년을 맞이했고,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은 2주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과 북의 문은 닫혀있으며 반목과 오해는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깊은 상처의 피해자이며 가해자입니다. 분단 체제에서 고통과 희생을 경험하고 있지만 동시에 적대적 분열과 혐오의 확산이라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폭력 순환을 단절하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참회와 용서를 통한 화해가 필요합니다. 화해는 새로운 길을 함께 걷는 것입니다. 진정한 화해는, 한 번의 상징적 행동이 아니라 공동의 미래를 더불어 만들어감으로써 완성됩니다. 우리는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주관하시는 절대자 앞에서 화해와 평화의 길을 간절히 구합니다. 이 땅에 몸소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완전한 화해자가 되신 예수님의 삶을 따라, 한반도의 깊은 아픔의 현장으로 들어가 평화를 향한 변화의 행진을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은 오래된 가치의 소중함을 성찰하게 합니다. 무엇보다 연대와 협력이라는 관계성을 통해 야만 비로소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음을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지 이전으로의 회귀가 아닌,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변혁적 전환을 지향해야 합니다. 이러한 때에, 한반도에 상생과 공존의 평화를 이루어 가는 일은, 대전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한반도의 오래된 전쟁을 끝내고 평화 체제를 만들어감으로써, 개인과 전 사회 공동체의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변혁적 순례자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한국YWCA는 새로운 100년의 문 앞에서 서 있습니다.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새로운 길을 열어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화해와 평화를 위한 변혁자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동북아시아 평화의 축이 될 한반도를 위한 연대와 협력의 힘 있는 발걸음을 내딛고자 아래와 같이 선언합니다.

1. 우리는 국내외 연대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전쟁 종식과 평화 협정 체결을 위한 운동을 적극 전개한다.
1. 우리는 시민들, 특히 여성들과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상처와 고통의 역사를 온전히 회복하고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를 도모하는 일에 동참한다.
1. 우리는 한반도를 비롯한 세계 곳곳의 정의로운 평화를 위한 행동에 연대한다.

2020년 10월 15일

<2020 YWCA 한민족 여성평화순례 한라에서 백두까지 순례자 일동>



목포YWCA



대구YWCA



안산YWCA



부산YWCA



김해YWCA



여수YWCA



YWCA 한민족여성평화순례  
 한라에서 백두까지  
 -평화를 기도하며 순례의 걸음 이어가다

청주YW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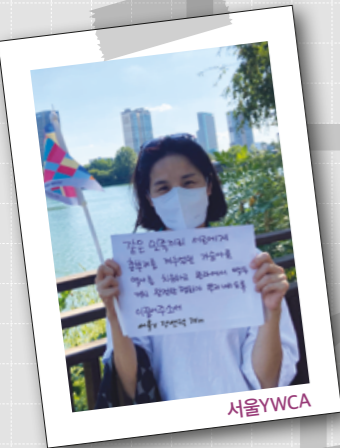
광주YWCA

"남과 북이 하나되어  
 새로운 세상을  
 열어 가게 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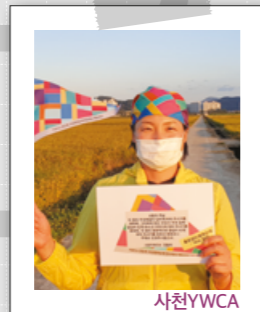
-광주Y



고양YWCA



서울YWCA



사천YWCA



서귀포YWCA



대전YWCA



안양YW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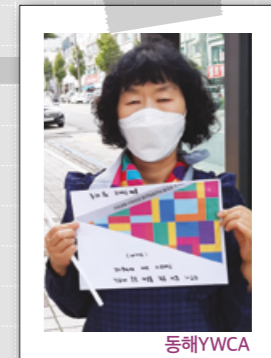
세종YWCA



논산YWCA



마산YWCA



동해YWCA



속초YWCA



충주 YWCA



인천YWCA



제천YWCA



# 2020 홀로 걷는 평화순례

춘천YWCA



순천YWCA



전주YWCA



진해YWCA



익산YWCA



진주YWCA



창원YWCA

"한라에서 백두까지  
 서해에서 동해까지  
 진정한 평화 깃들게 하소서"

-서울Y



파주YWCA



의정부YWCA



YWCA연합회



울산YWCA



강릉YWCA



천안YWCA



포항YWCA



제주YWCA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한미 관계

고유경

WILPF-국제여성자유평화연맹 코디네이터



2020년 7월 27일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열린 한국 정전협정 67주년 기념식에서 유엔사 사령관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출처 경향신문)

제3차 길위의 평화포럼이 8월 27일(목) 화상회의 줌에서 열렸다. 한미군사합동훈련을 비롯한 한미 동맹의 과거와 미래, 유엔사 등을 통해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2년 전 4월 27일, 10년 만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남북에 이어 6월에는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다. 새로운 북미 관계를 세워나가기로 하고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과 함께 전쟁 유해 발굴과 송환을 약속했다. 뒤를 이어 남북 정사는 9월 평양에서 다시 만나 4.27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는 후속 조치를 이어갔다. 남북 정사가 함께 한 자리에서, 남북 군 당국은 군사 분야 합의서에서 명확하였다.

## 남북 합의 이행과 신뢰 구축에 어려움을 조성한 유엔사

문재인 정부는 남북 간 합의 이행과 북미 간 협상 촉진을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가동하려 했으나 기대만큼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북미 대화가 교착 상태에 이르자, 남북 간 합의 이행이 독자성과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현실이 드러났다.

2018년 8월 남북 정사가 합의한 철도-도로 연결사업을 위해 남측 조사단 일행이 북측과의 철도 공동점검을 위해 방북하려는 것을 두고 유엔사가 이를 불허하였다는 소식이 있었다. 유엔사는 정전협정에 따라 군사분계선의 통과나 비무장지대 출입에 대한 허가 권한을 갖는다. 이를 근거로 기간 문제와 자료 제출 등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한국 측 관계

자는 과거와 다른 유엔사의 태도를 지적했다.

정전협정은 군사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군사령관 사이의 합의다. 그런데 전쟁상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남북 정상들의 합의를 이행하는 정치적 협력에 유엔사가 허가 권한을 행사하여 이를 지연시킨 것은 주권 침해라는 지적이 불거졌다. 우여곡절 끝에 남북 공동 철도 점검은 진행되었지만, 미군이 주도하는 유엔사의 이런 태도는 남측이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북측과 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을 남겼다.

유엔사는 남북이 합의한 9.19 군사분야합의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비슷한 태도를 보였다. 남북 군 당국은 9.19 합의에 따라 판문점을 포함한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드는 조치에 착수했다. 그런데 유엔사가 판문점 비무장화 조치를 검증하는 남북 협의에 참여하겠다고 나서서, 우여곡절 끝에 결국 3자가 참여하는 회의 구조로 비무장화 검증이 진행되었다. 그 후 비무장화된 판문점을 남북이 공동 관리하려는 계획을 두고 유엔사가 여기에도 한 주체로서 참여하겠다고 나섰다. 남측이 유엔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지만, 유엔사가 판문점을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막혀 남북 협의는 공전되다가 결국 멈추었다.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에 서명한 유엔사는 비무장지대를 관리하며 정전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 정전협정은 양

측이 정치회담을 진행하여 전쟁상태의 평화적 해결을 달성하는 것을 이롭게하기 위해 양측 군사령관이 정전을 유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남북 군 당국의 9.19 군사합의와 그 이행은 비무장화와 적대행위 중단, 단계적인 군축으로 정전을 더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평화적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정전협정 서명자로서 유엔사는 이런 노력에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게다가 유엔사는 1991년 판문점을 제외한 비무장지대 일대의 경비를 한국군에게 맡겼고, 2004년에는 판문점 경비 임무도 한국군에게 넘겼다. 한국군에 대한 통제권이 없는 유엔사가 판문점과 비무장지대 경비 임무를 한국군에게 일임한 것이다. 그렇다면 유엔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남측 군당국이 북측과 판문점 공동 관리를 해나가는 것은 실질적이면서 합리적이다.

한국 정부는 전쟁의 당사자이자 전쟁상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할 당사자이다. 정전협정에 명시된 유엔사의 권한을 부인하지 않는 한국 정부가 남북의 협력으로 신뢰를 쌓고 평화와 군축을 만들어가려는 노력에, 유엔사가 협력하는 것이 정전협정에 부합한다. 남북 간 9.19 군사합의 이행을 위한 협의가 교착 상태에 이르면서 유엔사가 남측 군 당국을 신뢰하지 못하고 남북 군사합의 이행을 지연시켰다는 비난이 커졌다. 유엔사의 이런 태도는 미군의 허가 없이 남측 군 당국이 북과의 합의를 이행하기 어렵다는 인식과 더불어 유엔사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비협조적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 평화를 이루려면 평화를 연습하자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시대에 뛰어들려면, 오래된 냉전시대 군사적 대결의 제도와 관행을 벗어야 한다. 전쟁상태를 유지해온 제도와 틀을 부여잡을 경우 군사적 긴장이 심화되고 무력 경쟁만 불러올 뿐이다. 적대관계를 끝내지 못하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이루기 어렵다. 남북 협력이 활발한 때에 북미 간 협상도 생산적인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역사적 교훈이다. 미국이 남북 협력의 성공에 적극 협력

하는 것이 비핵화의 지름길이다.

남북 정사는 판문점 선언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합의했다. 이어 9.19 군사합의를 통해 땅, 바다, 하늘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의 각종 군사연습 중지, 상공에서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합의하고,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기로 했다.

그런데 2019년 들어 규모를 줄이기는 했지만, 연례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진행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간 협상이 이어지는 동안 군사훈련을 없애는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말이다. 이 연례 훈련에는 북한을 점령하고 안정화하는 작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한국이 과거에 구매한 최첨단 F-35 전투기, 무인 정찰기 글로벌호크 등을 한국에 인도하면서, 자랑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의 무기를 구매하는 큰 고객이라고 추켜세우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 어느 때보다 높은 비율로 국방예산을 늘리고 있다. 2019년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8.2% 증액한 46.7조 원, 2020년의 경우 7.4% 증가한 50.2조 원이다. 한국은행이 평가한 2019년 북한의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35조 6천억 원으로, 한국의 국방예산보다 적다. 군사적 적대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이 국방비를 상당하게 늘리고 여러 첨단무기를 수입하는 것은 남북 사이에 군사적 긴장을 불러오는 데다 9.19 군사합의에도 맞지 않다.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신뢰를 쌓아나가는 데 기여할 외교-통일 예산은 올해 5조 원에 불과했다. 국방예산과 비교하면 10% 수준이다. 정부의 자원과 인력을 군사대결과 무기 경쟁에 집중하는 틀과 인식을 바꾸지 않고서 신뢰 구축과 공존의 시대로 뛰어 들 수 있는지 의문이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 평화를 연습하는 발상의 전환을 시도해보자. 

# “정말 산소보다 햄버거가 좋은가” -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탈육식의 선택

이윤숙

연합회 중점운동국 부장

## 아마존은 왜 여전히 불타고 있을까

기후위기가 몰고 온 명백한 응급상황으로서 산불이 세계 도처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9월에 발생하여 올 3월에 간신히 진화된 호주 산불의 악몽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아름다운 미서부 해안을 집어삼키고 있는 캘리포니아 산불은 지금 여전히 그칠 줄을 모른다. 그뿐 아니다. 동토의 땅 시베리아에서도 여기저기 산불이 계속되어 언 땅들을 녹이고 그 밑에 갇혀있던 메탄가스를 계속해서 분출시키고 있다.

그런데 그 재앙은 호주와 캘리포니아, 시베리아만이 아니다. 지구의 허파라 불리는 아마존 열대우림이 불타고 있다. 작년에도 대규모의 산불로 엄청난 지구적 재앙을 목도하였는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산불이 더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아마존 산불은 그 이유가 기후이변이 가져온 자연재해만이 아니라는 점에서 호주나 캘리포니아와 산불과는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아마존에서는 왜 여전히 크고 작은 산불이 계속되면서 지구의 허파를 훼손하고 있는 것일까.

## 의도적 방화에 의한 아마존 산불

아마존은 세계 최고의 생태계 보고이자 원주민의 토착문화가 보존되어있는 곳이지만, 동시에 햄버거 등 육식을 위한 세계 최대의 기업농장 지대이기도 하다. 아마존환경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빈번해진 아마존의 화재는 기후변화가 몰

고 온 건조한 날씨 때문이 아니라 인간에 의한 의도적인 방화이다.

아마존 열대우림에서는 농경지와 목초지 확보를 위한 무단벌채와 방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숲속의 나무를 잘라낸 후 고의로 불을 지르고 나서 경사면은 가축 사육지로, 평지는 대두와 옥수수 등 고기 생산을 위한 곡물 재배지로 이용하는 것이다.

이런 목적을 위해 1970년대 이후 아마존 열대우림의 약 4분의 1(우리나라 면적의 약 4배)가 사라졌고, 그중 약 80%가 고기를 얻기 위한 소 목축에 사용되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이런 방식의 숲의 파괴와 방화는 멈출지를 모른다. 해마다 햄버거를 비롯한 육식은 세계적으로 그 증가세가 크게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육식은 기후위기의 주범이다

우리나라도 1970년대 이후 육식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몇 년 전의 통계만 보더라도 지난 30여 년 사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고기양이 4배 이상 늘었다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이 삼겹살이나 불고기가 된 지 오래고, 개업하는 식당들은 대부분 고깃집이다.

하지만 이렇게 증가한 육식으로 인해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는 너무나 엄청나다.

2006년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발간한 <축산업의 긴 그림자>라는 보고서는 축산업이 기후위기를 비롯해 생물다양성 파괴, 대기오염, 토지 황폐화, 숲 파괴, 물 부족, 수질오염

의 주범임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축산업은 전 세계 농업용지의 8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 엄청난 곡물을 소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소고기 1인분을 만들기 위해 곡물 22인분을 투입한다. 이에 따라 약 20억 사람들이 기아와 영양부족에 시달리게 된다.

이뿐 아니라 고기 생산을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물이 소비된다. 소고기 1kg 생산에 1만5400리터의 물이 쓰이는데, 1kg의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 1kg의 곡물을 생산할 때보다 200배 정도의 많은 물을 쓴다고 한다. 그뿐인가, 가축들이 쏟아내는 분뇨는 개울과 강, 바다를 오염시킨다. 제주에서만 하루 2,800톤이 넘는 돼지 똥이 쏟아져 나오는데, 우리나라 약 1,000만 돼지가 쏟아낸 분뇨는 무려 4,846만 톤이다. 그야말로 엄청난 양의 축산 분뇨가 매일 매일 쏟아져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무엇보다 축산업의 악영향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는 지점은, 그것이 기후위기를 엄청난 속도로 가속화시킨다는 데 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 온실가스의 약 18%는 축산업에서 발생된다. 전세계의 약 700억 마리의 가축을 사육하기 위해 삼림을 파괴하여 사료 작물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육류를 냉동하여 공급하고 수출하기 위해 너무나 막대한 메탄가스,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이런 상황에서 보면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의 커다란 요인으로 알고 있는 전 세계 교통수단(14%)보다도 더 많은 양의 온실가스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 탈육식,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실천

2019년 8월 열린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총회에서 채택된 <기후변화와 토지에 대한 특별보고서>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해 기후변화를 저지하려면 붉은 고기 섭취를 줄이고 통곡물, 채소, 과일 위주의 식물성 식단으로 먹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미 전 세계의 각성한 시민들은 육식에서 벗어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네덜란드, 영국, 미국, 독일 등의 학교들에서는 고기를 줄이고 채식에 기반한 식단을 확산시키



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채식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생각보다 커서 전 세계 인구가 비건이 되면 매년 80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데, 이것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2%에 가까운 양이라고 한다.

우리는 기후위기의 명백한 결과인 고통스런 코로나 상황을 겪고 있다. 올여름은 ‘#이 비의 이름은 장마가 아니라 기후위기이다’라는 기후위기비상행동의 해시태그가 온통 SNS를 뒤덮을 만큼 유례없이 기나긴 장마와 태풍까지 겪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절체절명의 기후위기 현실에 대한 경각심은 높아졌다.

정부에 기후위기에 대응할 것을 촉구하고 모든 시스템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시민들이 각성하고 실천해야 한다. 텀블러를 들고 다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 식탁에 매일 오르는 육식이 기후위기를 가져오는 커다란 원인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육식으로 벗어나는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무엇을 먹을 것인가는 이제 단지 한 사람의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치적 실천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후행동에 나선 시위대의 “정말 산소보다 햄버거가 좋은가”라는 피켓은 바로 그 실천의 절박한 필요를 보여준다. 탈육식, 혹은 고기를 줄이는 것, 이것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지구 시민으로서의 핵심적 의무이다.



## “우리는 살고 싶어요”

9월 12일(토) '전국동시다발기후위기비상행동' 집회가 비대면 온라인 집회로 열렸다. 전국 40여 개 회원YWCA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메시지와 함께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것으로 기후위기비상행동에 동참했다. 특히 이번 행동에는 회원YWCA(거제, 고양, 부천, 순천, 세종, 안산, 안양, 연합회, 전주, 제천, 진주, 진해, 창원, 통영, 파주) 어린이, 청소년들이 참여해 아픈 지구를 물려받게 된 YWCA 다음 세대의 '살고싶어'라는 외침이 더욱 크게 들렸다.



# 가사노동자는 필수노동자다

##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노동연구센터 부연구위원

### 코로나19가 가사노동자 일자리에 미친 영향

한국여성정책연구와 여성가족부는 지난 6월 4일부터 6월 8일까지 가사노동자 29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가 일자리에 미친 영향에 대해 조사했다.<sup>1)</sup>

가사노동자의 코로나19 전후, 방문 가정 수가 줄어들었다는 응답이 74.1%로 응답자 10명 중 7명 이상은 방문 가정 감소를 경험하였다. 가사노동자의 월 평균 수입은 112.3만원으로, 코로나19 이후 월 평균은 63.9만원으로 코로나19 이전 보다 48.4만원이 감소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 응답자 82.4%가 '수입 감소'를 선택했고, 다음으로는 '일방적 방문 취소'로 인한 어려움 69%, '코로나 감염 위험' 55.9%, '방문가정 무시나 갑질'은 19.3%로 응답했다. 수입 감소에 대한 어려움이 82.4%가 그렇다고 응답한 것에서 코로나 감염 위험 보다는 일방적 방문 취소로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13.1% 높다.

<표 1>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단위 : 명, %)

| 전체  | 수입감소 | 코로나감염 위험 | 일방적 방문 취소 | 방문가정 무시나 갑질 |
|-----|------|----------|-----------|-------------|
| 290 | 82.4 | 55.9     | 69.0      | 19.3        |

가사노동자의 55.9%는 '코로나감염 위험'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하였는데 관련하여 코로나19로 일을 스스로 중단한 경험은 27.2%가 있었다.

### 사회안전망이 시급하다

코로나19를 통해 사회안전망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가사노동자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은 14.1%, 미가입 1.7%이고 국민연금은 직장가입 11.0%, 미가입 52.8%이다. 고용보험은 가입 9.7%, 미가입이 84.1%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다 1.6배~45.5배 높다.

<표 2> 사회보험 건강보험 가입 상태

(단위 : %, 명)

| 전체  | 건강보험  |     | 국민연금  |      | 고용보험 |      |         |
|-----|-------|-----|-------|------|------|------|---------|
|     | 직장 가입 | 미가입 | 직장 가입 | 미가입  | 가입   | 미가입  | 가입여부 모름 |
| 290 | 14.1  | 1.7 | 11.0  | 52.8 | 9.7  | 84.1 | 6.2     |

코로나19로 일자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사노동자가 정부에 바라는 정책 1순위와 2순위를 합한 비율은 '재난지원금 등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금, 보조금 등'이 51.7%로 가장 높고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 지원' 34.1%, 다음으로 '가사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보장 법 제정'이 32.1%, '방문 취소시 빠른 연계' 22.6%, '부대 비용 지원'이 22.8%의 순서로 조사되었다.

<표 3> 정부에 바라는 점(1+2순위)

(단위 : %, 명)

|                                   |      |
|-----------------------------------|------|
| 재난지원금 등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금, 보조금 등     | 51.7 |
|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 지원                 | 34.1 |
| 가사노동자노동자성 인정 보장 법 제정              | 32.1 |
| 방문 취소시 빠른 연계                      | 26.2 |
| 부대 비용 지원(교통비, 점심식사 제공 또는 점심식사비 등) | 22.8 |
| 대체 일자리 지원                         | 18.3 |
| 가사노동자 활동시 방역 물품 지원                | 5.5  |
| 은행 대출 등 금융적 지원                    | 2.4  |
| 전체                                | 290  |

### 가사노동자는 필수노동자다

가사노동이 사회의 근간을 유지하는 필수 노동이라는 것에 이견이 없음에도 가사노동자가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한 사이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의 필수노동자에서도 가사노동자는 배제되는 분위기다.

9월 10일 전국 지자체 최초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성동구에서 정의한 '필수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필수업종'(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주민의 안전 및 최저생활 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 등 근로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현재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인 가사노동자는 필수노동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의미한다.

뉴욕타임즈 기고문(2020.9.18)에 나온 "가사노동자들이 하는 일을 'help'로 부르는 것이 가사노동자 일의 가치를 절하시킨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근로기준법 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가사노동자는 가사를 돕는 자가 아닌 한 가정의 가사노동을 하는 자로 '가사노동자'로 불리워져야 한다. 또한 한국 표준직업분류에서 가사노동자의 직업명이 '가사 및 육아도우미'로 나오는데, 가사도우미로 정의한 것을 '가사 및 육아 노동자'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한국표준직업분류의 9개 직업분류 중 9번째 해당하는 '단순노무종사자'에는 하위 분류로 '가사 및 육아 도우미'가 포함된다. 단순노무종사자에 속하는 직업군은 '가사 및 육아 도우미'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이동 제한의 도시 락다운(lockdown) 상태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이동에 제한을 받지 않은 필수노동자(essential worker)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표준직업 대분류 '단순노무종사자'(영문, elementary occupations) 직업명을 필수노동자 혹은 기반노동자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한다.

### 가사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되어야

가사노동자들은 1세대 특고·프리랜서 노동자로서 가장 오래된 직업임에도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한 것에서 받은 불이익이 크다.

ILO는 2011년 189호 가사노동자협약(Domestic Workers Convention, no.189)을 채택한 바 있다. 한국 가사노동자들은 2011년 ILO 가사노동자협약 채택을 계기로 가사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을 최근 10년 간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한국은 1953년 근로기준법의 11조 1항의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에 근거하여 근로기준법 대상에서 제외되어왔고 이에 따라 노동자로서 갖는 권리에서도 배제되어왔다. 2020년 7월 7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심의·의결하여 20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한 법률안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가 될 예정이다. 21대 국회에서는 조속히 가사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법이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감염병은 우리 사회의 취약한 부분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코로나19 재난은 취약계층을 더 취약하게 하여 '재난은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 사회가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노동자는 대면일자리로서 일자리 감소와 함께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부터 일자리 유지의 어려움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 또한 고용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어 재난지원금이나 지원금 등도 받을 수 없다. 가사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을 위해 활동을 이어온 YWCA의 목소리가 더욱 절실한 시기다. 

1) 김난주·이선행(2020), '코로나19 이후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여성노동자 위기 현황과 정책과제'주제발표,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최, 제2차 코로나19 관련 여성가족 분야별 릴레이 토론회(2020.6.18.)

# 사회적연대에 기초한 건강보험제도 운영을 위한 과제

## 안정희

연합회 소비자운동 부장

2021년도 건강보험률이 2.89% 인상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기존 6.67%에서 6.86%로 인상된 것이다. 2020년도 3.2% 인상에 이어 다소 낮은 수준이지만 건강보험료는 2018년 2.04%, 2019년 3.49%로 꾸준히 인상되고 있다.

매년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각 계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보험료 책정은 갖은 진통을 겪으며 결정된다. 올해도 여전히 두 차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소위원회와 보험료를 결정하는 최종 본회의는 4시간 이상 세 번의 정회를 거듭하면서 각계의 입장 조율을 거쳐 최종 결정되었다.

건강보험료 인상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이다. 건정심은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건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2인씩,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자영업자단체가 각각 1인씩 추천하는 8명,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 및 약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8명,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공무원 2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추천하는 각각 1인씩,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인으로 구성된 공익 8명으로 구성된다. 즉, 각계각층의 균형을 이룬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 보험료 인상에 대한 두 가지 입장

보험료 인상에 대한 찬반 입장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보험료가 인상되면 보험료를 납부하는 근로자와 근로자의 보험료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경영계는 부담이 커지게

되므로 보험료 인상률에 대해서 훨씬 더 보수적인 입장을 갖게 되고, 의료계는 현 보험수가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보험재정을 더욱 확충하여 방역을 확대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라는 주장으로 더 높은 보험료 인상에 찬성한다.

앞서 정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2020년~2022년 보험료율을 3.49%, 2023년에는 3.2% 인상을 계획했다. 그러나 올해 2월부터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으로 코로나19에 긴급 대응하는 과정에서 확진자 진단과 치료비 1,150억 원, 재난지역 주민과 취약계층의 건강보험 경감조치 9,496억 원, 의료기관의 각종 재정지원 등이 건강보험 재정으로 투입되면서 건강보험재정은 2019년 2조8,243억이라는 재정적자에서 더욱 어려워졌다.

무엇보다 코로나 충격으로 2분기 경제성장률은 -3.3%로 하향되었고, 최악의 경제·고용위기로 기업과 가계는 더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살은 보험재정을 국민에게만 전가하는 정부로 향하게 된다.

### 보험료율 인상과 정부의 책임

사실상 매년 보험료율 인상으로 이렇게 진통을 겪는 이유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

현 정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건강보험료 수입 규모는 증가하고 있는데도 정부지원금 비중은 이명박정부(08-12년) 16.4%, 박근혜정부(13-16년) 15.3%, 문재인정부(17-20년) 13.4%로, 보장성 강화를 내건 현

정부시기가 오히려 이전 정부보다 국고지원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올해 국고지원도 14.3% 내외로 지원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방식의 건강보험 제도를 시행하는 네덜란드(55.0%), 프랑스(52.2%), 일본(38.8%), 벨기에(33.7%), 대만(22.9%) 등과 비교해도 우리 정부의 지원금 규모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이 부담한 건강보험료의 20%에 해당하는 국고를 지급해야 한다”라고도 명시되어 있고 2022. 12. 31.까지 일몰제로 운영 된다는 한시법으로 되어있다.

건정심 가입자단체들은 2021년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 몇 차례의 성명을 발표하면서 정상적인 국고지원 이행과 일몰제 규정삭제를 촉구했지만 정부는 20% 지원은커녕 15%지원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매년 반복되는 건강보험료 인상률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재정지원 정책을 수립하고자 지난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자동 폐기되고, 21대 국회에서 ‘당해연도 보험료 수입의 14%를 지원하되, 실제수입액과 예상수입액과의 차이로 인한 차액은 차차년도에 계상하여 정산한다’는 기동민의원 발의법안이 진행 중이다.

금번 2021년 보험료율 결정 시에도 부대조건으로 1)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020년도 코로나19에 따른 건강보험료 경감액을 국고에서 지원토록 정부에 촉구한다 2)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안정적인 국고지원 확보를 위해 2020년 내에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규정 삭제 등 관련법 개정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함께 의결했다.

### 안정적인 법안마련과 국고지원 필요

안정적인 법안마련과 확대된 국고지원이 연내에 해결되지 않으면 보험료율에 대한 지속적인 진통은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사회보장체계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이른바 ‘K방역’의 힘을 우리는 보았다. 또한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원리는 사회적연대에 기초하여 재원을 조달하는 사



8월 27일 서울시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앞에서 '2021년 건강보험료를 결정에 대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보험방식의 의료보장체계라는 점이다. 보험료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 징수되지만 보험급여는 균등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국민 누구나가 차별 없이 같은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에서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보장성을 낮춰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주장도 곳곳에서 제기된다. 그러나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욱 고통받는 집단은 취약계층이며, 소득계층간의 의료 불평등을 개선하는 것,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여 생기는 가계의 이중 부담을 줄이는 것 또한 보장성 강화의 목적이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유지와 건강한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적연대원리에 따른 적절한 보험료 부담이 필요하다는 것이 건정심 시민·소비자단체 대표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YWCA연합회의 입장이다. 건강보험료 부담은 국민의 아름다운 권리와 의무이기도 하다.

앞으로 공적 의료 보장을 위해 공적의료 조달 장치인 국민건강보험제정 규모를 확충해야 하는 과제는 많다. 무엇보다도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제대로 사용되는 것, 즉 의료공급제도의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것이다. 보험급여의 세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합리적 의료이용지원 및 지출을 보다 더 엄격하게 관리하고 정부의 국민건강보험정책을 점검하여 지출관리의 효율성과 안정적인 재원조달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의 운영 재정비 노력, 투명한 소득과 과 의료보험료 징수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유튜브 그리고 가짜뉴스



김준경

미디어오늘 기자

## 유튜브, 가장 신뢰하는 미디어가 되다

“당신이 가장 신뢰하는 매체는 무엇입니까?” 시사주간지 <시사IN>이 지난 9월 발표한 ‘대한민국 신뢰도 조사’ 결과 1위는 유튜브였다. 유튜브는 가장 많이 이용하는 미디어일 뿐 아니라 가장 신뢰하는 미디어가 됐다.

유튜브의 압도적 영향력과 높은 신뢰는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 하다. “나는 KBS를 신뢰해”와 “나는 유튜브를 신뢰해”의 어감은 다르다. 개인 맞춤형으로 콘텐츠를 보여주는 유튜브가 가짜뉴스로 대표되는 극단적 콘텐츠 소비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가짜뉴스라는 용어는 2017년 미국 대선을 계기로 부상한 ‘신조어’지만 가짜뉴스의 속성을 가진 정보는 인터넷의 등장과 함께 일찌감치 고개를 들었다. 시민들이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알릴 수 있는 생산자가 되면서 인터넷은 대안 미디어 역할을 했지만, 동시에 검증되지 않은 정보로 인한 폐단이 나타났다. 소셜미디어 시대가 도래하면서 가짜뉴스의 영향력 역시 커졌고, 동영상 중심 유통 환경에서 유튜브 가짜뉴스 문제가 화두가 됐다. 가짜뉴스라는 표현이 개념이 명확하지 않는데 이 글에서는 내용이 허위인 허위정보, 음모론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가장 논란이 되는 가짜뉴스 유형은 ‘정치적 가짜뉴스’, ‘혐오표현형 가짜뉴스’, ‘의학 관련 인포데믹(Infodemic, 정보 전염병)’이 있다. 이들 개념은 혼재돼 나타나기도 한다.

## 가짜뉴스 유형

‘정치적 가짜뉴스’는 문재인 대통령 치매설, 5·18 민주화운

동 북한군 침투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공작설 등이 대표적이다. 일부 극단적 보수층이 박근혜 정부 탄핵 반대 주장에 동조하지 않은 보수언론을 불신하면서 스스로 대안미디어가 되거나 적극적 후원자로 등장했다. 지난 4월 미디어오늘 조사 결과 정치시사 유튜브 채널(언론사 채널 제외) 상위 20곳 중 16곳이 보수성향으로 나타나는 등 유튜브에선 보수 우위가 두드러졌다.

‘혐오표현형 가짜뉴스’는 혐오표현을 유포하는 과정에서 가짜뉴스를 활용하는 경우다. 혐오표현은 ‘사회적 소수자나 약자 또는 그 집단에 대한 차별을 야기하는 표현’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일본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는 유언비어 유포는 혐오표현이 가짜뉴스와 맞물려 현실 범죄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다.

‘의학 관련 인포데믹’은 해외에서 파급력이 컸다. 유럽에서 5G가 코로나19를 만들었다는 음모론이 돌아 기지국 테러가 발생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개 구충제가 항암치료에 효과적이라는 신뢰하기 어려운 정보가 미국에서부터 유포돼 한국에서도 개 구충제로 항암치료에 나선 사례도 있다.

사회적으로 가장 많은 조명을 받은 유형은 ‘정치적 가짜뉴스’지만 주목해야 할 유형은 ‘혐오표현형 가짜뉴스’나 ‘의학 관련 인포데믹’ 또는 이들 정보가 정치적 가짜뉴스와 연계된 경우다. 극단적 정치세력이 퍼뜨리는 ‘정치적 가짜뉴스’는 극단적 커뮤니티 내부에서만 영향력을 발휘하고 ‘장식적 시민’으로부터 외면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혐오표현형 가짜뉴스’와 ‘의학 관련 인포데믹’이 가미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코로나19 국면에서 중국과 중국

동포를 향한 혐오 정서가 이어졌고, 중국인들이 한국 여론을 조작한다는 ‘차이나 게이트’ 음모론으로 발전했다. 근거가 부족한 ‘차이나 게이트’는 원내 정당이 인용해 주장하는 등 제도권으로 수용되기도 했다. 뉴질랜드가 페미니즘 정책을 도입한 탓에 망할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을 담은 유튜브 영상은 유튜브가 삭제했음에도 지속적으로 다시 업로드되고 정치적 성향과는 무관하게 반 페미니즘 정서를 가진 이들에게 집중적으로 소비되고 있다.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가짜뉴스나 극단적인 주장은 사람의 심리를 파고든다. 여성, 난민, 중국동포 등을 향한 편견과 혐오정서를 이용하고, 그들로 인한 피해를 부각하며 분노를 부추긴다. 코로나19처럼 사회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분노의 타깃’을 만드는 정보의 영향력이 커진다. 특히, 가장 많은 사람이 이용하면서 맞춤형 정보 중심으로 배열되는 유튜브는 이 같은 가짜뉴스를 전파하기에 최적화된 공간이다.

## 가짜뉴스에 맞서기 위한 방법

무엇을 해야 할까. 정치권과 언론이 지속적으로 규제론을 꺼내 들지만 규제는 근본적 처방이 되지 못한다. 규제는 권력기관이 집행하게 되는데 인터넷 상의 수많은 정보 가운데 정부에 비판적인 정보에 중점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그래서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 규제가 싫어서 다른 대책을 찾는 게 아니라 완벽한 규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오남용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규제라는 선택지를 지워야 생산적 논의를 할 수 있다.

가짜뉴스의 힘을 빼려면 진짜 뉴스가 강력해야 한다. 정부는 의혹과 의문에 충실하게 답변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가짜뉴스의 영향력을 줄일 수 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의 소극적인 정보 공개는 무수한 음모론을 낳았다. 언론은 사실을 검증하고, 진실을 추구하는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는 무수한 정보 가운데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더 눈에 잘 띄게 노출할 필요가 있다. 코


로나19 국면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브리핑과 언론의 적극적인 팩트체크, 네이버와 유튜브 등 사업자의 코로나19 방역 정보 첫 화면 노출 정책은 긍정적인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시민사회는 감시의 눈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기성 정치권과 미디어를 향한 분석, 견제를 넘어 변화한 미디어 환경에 주목해야 한다. 최근 들어 언론시민단체들은 유튜브에 주목하고 있다. 불공정 보도 모니터를 중점으로 해온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총선을 기점으로 유튜브 뉴스 모니터에 나섰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유튜브 속 키즈 콘텐츠 성차별 문제를 모니터링하고 공론화했다. 언론인권센터는 유튜브 속 시사·뉴스 콘텐츠가 현안을 다룰 때 인권감수성이 결여된 문제를 모니터링해 지적했다.

## 시민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건 시민의 역할이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나와 같은 관점을 공유하는 언론사의 뉴스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44%로 조사 대상국 가운데 4위로 나타났다. 유튜브가 가장 높은 신뢰도를 기록한 이면에는 독자들의 정파적 뉴스 소비가 자리 잡고 있고, 이는 가짜뉴스와 극단적 주장의 자양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시민의 역할은 교육의 변화와 맞물려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월 범정부 차원의 첫 미디어 교육 정책을 발표하는 등 미디어를 비판적이고 능동적으로 수용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주목하고 있다. 다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가짜뉴스를 판별하는 퀴즈로 단순화되거나 자신의 성향에 맞지 않는 뉴스를 비판하는 도구로 쓰이는 경향이 일정 부분 나타나고 있는 점에서 우려가 있다.

미디어가 생산되는 과정을 이해하고, 여기에 개입되는 ‘의도’와 ‘이데올로기’ 등 외적 요소를 파악하고, 다양한 뉴스를 균형 있게 살피고, 무엇보다 신중하고 책임 있게 뉴스를 소비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토론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바람직한 미디어 리터러시는 ‘진실’과 ‘허위’를 가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시민 공론장’의 성장을 돕는 교육으로 거듭나야 한다. 

# '코로나블루' 부숴 버려!

대학·청년Y

'코로나블루'는 COVID-19와 우울감(blue)이 합쳐진 신조어다. COVID-19가 잠시 주춤하는가 싶더니 다시 확산되면서 많은 청년들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느끼고 있다. 코로나블루는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YWCA 청년들은 코로나로 인한 우울감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애플워치 구매!

요즘 나는 눈물이 많아졌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무력감과 우울함이 계속되는 게 코로나 때문이라고 생각이 든 건 '코로나블루'라는 신조어를 듣고 나서부터다. 단순한 우울감이 아니라 자신감이 결여되고, 모든 일을 하기 싫어졌다.

즐거운 미래를 그릴 수 없어 미래가 어둡고 캄캄한 기분이 다. 매일 아침 확진자 수를 확인하게 되고 줄어들지 않는 숫자는 정신적 피곤함을 주는 듯하다. 더군다나 이번 여름은 갖가지 태풍으로 인해 온종일 습해서 우울감이 더 증폭됐던 것 같다. 우울감을 극복하고자 산책도 해보고, 책도 읽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영화도 봤지만 마스크가 없는 평범한 일상이 오지 않는 이상 해결될 것 같지 않았다.

그래도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에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보는 중이다. 우선 애플워치를 샀다. 만만치 않은 가격이지만 여행도 못가겠다, 나를 위한 선물로 큰맘 먹고 샀다. 애플워치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운동' 기능을 모두 써보려고 노력 중이다. 활동 링을 매일 꼭 채우기 위해 애플워치가 알려주는 지정 시간에 호흡운동, 스트레칭, 달리기 등을 해본다. 가끔 여유로울 때는 자전거도 타곤 한다. 충동구매이

## 20대 70.9% '코로나블루' 겪고 있다

\*20대 성인 남녀 4,450명 대상 조사, 자료: 알바몬



(출처: 알바몬)

긴 했지만 나름대로 만족하면서 '코로나블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잘 산 것 같다!

## 유튜버 데뷔 준비

평소에도 나는 '집순이'라서 밖을 잘 안 나갔다. 그런데 내가 원해서 나가지 '않'는 것과 코로나로 인해 나가지 '못'하는 것은 달랐다. 원래 내성적인 성격이라 사람들을 자주 만나지 않았는데 그나마 유일하게 사람들을 만나고 바깥활동을 하는 곳이 YWCA였다.

그런데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 YWCA 활동을 하지 못하니 혼자자 된 기분이 더 크게 들었다. 코로나에 걸리면 육체적인 고통이 크겠지만 '코로나블루'는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 같다. 코로나는 우리가 조심하면 예방할 수 있지만 '코로나블루'는 예방할 틈도 없이 누구에게나 스며드는 것이라 더욱 무섭다.

코로나가 생기기 전에도 취업문제, 주거문제 등으로 힘들었던 청년들에게 코로나는 더욱 치명적인 수밖에 없다. 나는 코로나에 걸릴 것 같다는 두려움보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것, 취업 문턱이 더욱 높아진 것, 수입에 대한 걱정들이

더욱 무섭다.

나는 코로나 극복을 위해 유튜브에 데뷔해볼까 한다. 조금 민망한 계획이긴 하지만 유명해지고 싶기보다는 유튜브를 하게 되면 좀 더 부지런해지고 계획적으로 바뀔 것 같다. 그리고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시작해본다. 이런 일상의 변화가 '코로나블루'에서 나를 해방시켜주지 않을까?

## 위드(with) 코로나

슬프게도 나는 코로나에 해탈했다. 언제 끝날지 기다리기만 하다보면 더 우울해질 것 같고 나는 이게 우리의 일상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다. 나는 '덕질'(어떤 분야를 열성적으로 좋아하여 그와 관련된 것들을 모으거나 파고드는 일)을 시작했다. 아이돌 '덕질'도 한 번도 안 해본 내가 '펍수' 캐릭터에 빠졌다.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펍수를 자꾸 찾아보게 되고 보면 볼수록 너무 웃기고 행복해졌다. 당당하게 자기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내가 '덕질'을 하게 된 포인트다. 펍수 인형부터 이모티콘, 티셔츠, 볼펜까지 마구 사면서 조금은 행복해진 것 같다.

두 번째는 내 방 인테리어를 했다. 예전에 방은 그냥 자는 곳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코로나로 인해 집에 눌러 붙어 있다 보니 인테리어와 관련된 새로운 취미가 생겨버렸다. 안 쓰는 물건과 옷을 버리고 구조도 다 바꿔보니 속이 후련했다. 누워서 넷플릭스 보기 편한 쿠션부터 침대용 테이블도 샀다. 그래서 한동안은 방에서만 머물고 싶어질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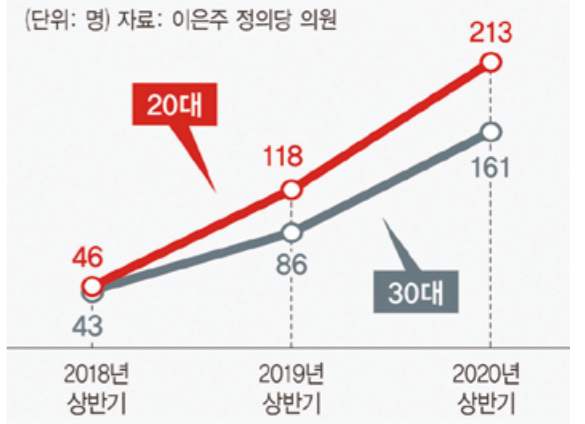
이런 변화들로 인한 마음의 위안이 오래가면 좋겠다.

## 줌(zoom)에서 만나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온라인 회의, 강의가 엄청 많아졌다. 아니 거의 대부분 온라인에서 이루어진다. 평생 쓸 일 없을 줄 알았던 노트북 카메라에 스티커를 떼기 시작했고 매일매일 카메라를 사용한다.

어색했던 화면 속 내 얼굴이 이제는 너무 익숙하다. 이제

## 20·30대 고의적 자해 발생 추이



(출처: 한겨레신문)

는 온라인 회의 프로그램인 줌(zoom)과 카카오톡 라이브,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익숙하고 재미있게 활용하고 있다. 조금만 심심하면 친한 친구들이 들어가 있는 단톡방에 라이브를 켜고 내 일상을 공유하면서 수다를 떠다.

좁은 강의용, 회의용뿐 아니라, 밥을 먹을 때도 사용된다. 친구들과 서로 얼굴 보고 밥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때면, 각자 집에서 같은 식당에서 음식을 배달시켜서 먹으면서 줌으로 수다를 떠다. 그러면 조금은 같은 공간에 있는 기분이 든다. 이미 변해버린 일상이라면 그것에 익숙해지고 재미있게 사용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현명한 것 같다.

## 동네 한바퀴

코로나로 인해 변한 일상들이 슬프긴 하지만 인간관계에서는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에게 안부를 묻고, 챙길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것 같다.

아무나 만날 수 없고, 멀리 갈 수 없기 때문에 신뢰 가는 사람만 만나고 안전한 공간에서만 만나게 된다. 그곳이 바로 동네다. 친구 집, 우리 집, 동네 산책코스를 자주 돌아보면서 동네를 꼼꼼하게 돌아볼 수 있게 됐다. 바쁘게 살 때는 10년 넘게 살던 우리 동네에 이런 길이 있었고, 이런 카페가 있었는지 몰랐다. 이참에 동네 곳곳을 다녀보려고 한다. 그동안 못 챙겼던 친구들도 만나고 근처에서 행복을 찾아본다.

# 대전·대구·안산YWCA, 사단법인으로 재도약하다

## 연합회 조직혁신지원국

세계YWCA를 비롯한 국제NGO의 구조를 기초로 구축된 한국YWCA의 거버넌스 구조는 그동안 한국의 시민사회와 민간조직의 모델이 되어왔다. 급변하는 사회 변화 가운데 창립 100주년을 앞둔 한국YWCA는 미래세대의 관점에서 조직의 투명성, 합리성,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역운동을 활성화하고자 조직정비와 혁신을 중요한 과제로 앞세워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다. 회원YWCA 법적지위 확보 및 법인·비법인사단으로의 전환이 변화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2020년 3월 연합회 정기총회에서 회원YWCA 재구조화 정책이 의결된 이후, 지난 8월 한국YWCA 역사상 첫 번째로 세 개 회원YWCA(대구, 대전, 안산)의 지역법인 전환이 승인되었고 8월부터 9월에 걸쳐 지자체 주무관청으로부터 법인 설립을 허가받았다.

### 법인 설립을 허가받기까지

지역법인을 준비하는 회원YWCA는 연합회와 함께 2019년부터 지역법인 준비 사무총장연구모임을 진행하며 법인에 따른 설립준비와 향후 과제를 고민해왔다. 연합회는 회원YWCA 지역법인화 준비과정에 대한 지원으로 교육과 컨설팅, 세무, 법무 사항의 전문가 자문을 지원하였고, 회원YWCA의 핵심주력운동 설정, 법인정관안 마련, 자산이전 과정에 대한 세무검토, 법인 회계 및 행정업무 정비, 부속시설 이관 관련 사항 등을 함께 점검하며 지원하였다.

법인준비TF 구성 후 법인 준비를 위한 내부논의, 정관마련, 기본재산 설정, 주무관청과의 협의 등 법인설립준비를 완료한 회원YWCA는 연합회에 지역법인 승인신청서를 제출한다. 2020년 7월 6일 대전YWCA, 대구YWCA, 안산YWCA

가 지역법인 승인 신청서를 연합회로 제출하였다.

이후 연합회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진행하였다. 법인 승인신청서에 대해 회원YWCA 법인 정관안의 변호사 법적 검토 및 회원YWCA 자산 이전에 따른 세무사의 세무 검토를 포함한 1차 서류심사 후, 회원YWCA 지역법인 승인 현장심사팀(팀장 한영수)이 회원YWCA를 방문하여 임원단과 간담회를 통해 지역법인 추진 이후 회원YWCA 과제와 연합회와의 협력강화 방안을 확인하였다.

서류·현장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8월 6일 연합회 실행위원회에서 대전YWCA, 대구YWCA, 안산YWCA의 지역법인 전환을 승인하였다. 같은 날 연이어 진행된 후원회 임시총회에서 후원회 분사무소로서의 회원YWCA 지점 탈퇴 및 후원회 위탁 회원YWCA 자산을 지역법인 회원YWCA로 증여하는 것을 의결했다.

### 사단법인 대전·대구·안산YWCA, 앞으로의 과제

이후 각 회원YWCA는 사단법인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지자체 주무관청에 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8월 18일 대전YWCA, 9월 8일 대구YWCA, 9월 23일 안산YWCA가 지자체 주무관청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증을 각각 전달받았다.

지역법인 설립이 완료된 대전YWCA, 대구YWCA, 안산YWCA는 각각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에 소속된 법인으로서 주된 목적사업 중심으로 회원YWCA 운동을 정비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한국YWCA 첫 번째 지역법인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정의, 평화, 생명'을 위한 운동 전개를 기대한다.

## 사단법인 대전·대구·안산YWCA 비전



8월 10일(월) 사단법인 대전YWCA 발기인총회    8월 7일(금) 사단법인 대구YWCA 창립총회    8월 24일(월) 안산YWCA 법인창립총회

### 사단법인 대전YWCA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며

1946년 중부지역 최초로 대전YWCA가 설립되었습니다. 대전YWCA는 한국YWCA의 회원YWCA로 74년이란 긴 세월 동안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여성의 자존감 회복과 지위향상을 위해 대전 지역사회에서 시대를 앞서는 선구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제 사단법인으로 새 출발하는 대전YWCA는 주어진 시대적 사명을 붙들고 스스로 변화하며 한 발 더 앞서나가자 합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발맞춰 법

인의 자치성과 책임성을 더욱 확고히 하며 모든 활동에 투명성, 공공성, 전문성을 담아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합니다. 시대적 변화 가운데 두려움이 아닌 소망과 기대로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생명사랑의 기운으로 서로에게 힘을 주며 대전 지역사회에 생명과 평화, 정의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새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대전YWCA 창립총회 총회사 중)

### 사단법인 대구YWCA 사단법인 대구YWCA로 재도약하며

사회봉사와 사회운동에 목적을 가지고 1923년 창설된 대구YWCA는 건강한 지속가능성을 위해 YWCA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자치성, 투명성, 공공성, 책임성을 가지고 지역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 있도록 오늘을 기점으로 사단법인 대구YWCA로 재도약하고자 한다. 우리는 새로운 100년을

향한 발판으로 목적사업을 추진함으로 영성의 바탕 위에서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하기 위한 희망의 꿈을 가지고 더욱더 전진할 것이다. (사단법인 대구YWCA 설립취지문 중)

### 사단법인 안산YWCA 지역 운동체로서의 역할 다할 것

1986년 1월에 창립했던 안산YWCA가 법인창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산은 작은 도시이지만 지역의 특성상 젊은 피가 흐르며 열정이 많습니다. 우리 안산YWCA가 지역 운동체로서 역할을 다하고, 연대하여 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 듯 지역에서 소

외된 곳, 어두운 곳을 찾아 그들이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겠습니다. 안산YWCA가 사명감을 가지고 묵묵히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회원님들의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안산YWCA 창립총회 총회사 중)

# 키다리, 다함께 ZOOM IN!

## 천유란

연합회 조직혁신정책국 간사

전국키다리모임이 8월 29일(토) 화상회의 중에서 열렸다. 75명의 '키다리(키다리학교 청소년)'와 '키쌈(키다리학교 운영을 지원하는 사람-주로 대학 청년Y 회원)' '크쌈(키다리학교 운영을 지원하는 사람-주로 실무활동가)'이 참여했다. 키다리는 코로나19와 상관없이 다양한 나눔을 통해 우리가 계속 만나야 하는 이유를 되새기며 앞으로의 만남을 약속했다.



### 키다리, 우리는 만나야만 했어!

키우자 Y다운 리더의 준 말로, 청소년이 지역에서 주체적으로 활동하도록 지원하는 '키다리학교'가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 오프라인 활동을 전면 중단하게 되었다. 예기치 못한 사회적 멈춤 상황 가운데, 만나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만들어가는 재미가 중요한 키다리학교는 그저 코로나19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한 달 두 달... 기약 없이 시간만 흘러가는 동안 만나지 못해 아쉬워하는 사람들은 키다리뿐만이 아니었다. 키다리학교 활동을 지원하는 키쌈(운영진)과 실무활동가들 역시 반복되는 지역 확산 속에서 계획했던 키다리와 만남이 불발될수록 활동의 동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고 오프라인 모임만 기다리며 더이상 이 상태를 지속할 수 없었다. 우리는 새로운 활력이 필요했고, 무엇보다 모두 잘 지내고 있는지 서로의 안부가 궁금했다. 그렇게 75명의 키다리와 키쌈이 서로에게 희망을 주고 안부를 주고받기 위해 8월 29일(토) 전국키다리모임 '키다리, ZOOM IN'이 열렸다.

### 키다리가 재미있는 이유

그동안 키다리들이 경험한 온라인 활동은 일방적 방식의 강의나 교육밖에 없었다. 게임처럼 재미있지도 않았고 내 생각을 말하며 표현할 수도 없었다. 오프라인 활동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활동도 재미없으면 참여하기 싫어진다. 온라인 공간 속에도 '내 자리'와 '내 목소리' 그리고 함께 만나서 경험하는 '재미'가 필요하다.

키다리학교는 뜻밖의 재미있는 요소들이 때때로 튀어나온다. 역시나 이번 전국키다리모임도 마찬가지였다. 모임 시작 직전 어디선가 기타소리가 흘러나왔다. 조용한 분위기를 뚫고 재미없는 분위기를 살리고자 순천 박성수 키다리가 기타연주를 시작한 것이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요청한 것도 아니다. 그 순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기타가 옆에 있었던 것뿐이다.

덕분에 모든 참가자들은 자연스럽게 모임에 몰입할 수 있었다. 오프닝 순서에서는 최선화 선생님과 마이크를 켜지 않고도 서로의 의사를 알 수 있는 손가락 '네'를 배웠다. 그리고 박수 대신 양손을 별처럼 반짝이며 화면을 채우면서 호응하는 방법도 알게 되었다. 우리만의 수신희를 배우고 소그

룹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펼쳤다.

운이 좋게도 이번 전국키다리모임은 재미있었다. 그 증거로 키다리들이 자발적으로 다음 모임을 기대하고 계획하는 것으로 들 수 있다. 청소년들은 재미없으면 다시 오겠다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 키다리들이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한데, 행사를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도록 하고 참가자들을 충분히 독려해야 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를 준비하는 키쌈(운영진)들의 역할이다.

### 키다리를 이끄는 키쌈(운영진)의 힘

연합회는 지역에서 YWCA 청소년활동을 자치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키다리학교 연구 TF 팀'을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4월부터 격주로 온라인 회의를 진행하며, 8개의 키다리학교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지역 상황을 반영한 활동들을 전개했다.

상반기에는 YWCA 청소년활동가로 재도약하는 키쌈들을 직접 지원하며 상시적인 지역 상황을 공유받고, 두 번의 '키쌈 워크숍' 개최를 통해 역량을 강화했다. 이렇게 준비된 키쌈들을 기반으로 전국키다리모임을 개최할 수 있었다.

키쌈들은 이번 전국키다리모임의 목적인 키다리들이 어떻게든 '모여야 한다'는 뜻에 함께하며,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했다. 또한 키다리들이 두 시간 내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을 만들어주었다. 전국키다리모임은 미리 준비된 회원YWCA 소개영상을 상영하며 서로의 YWCA를 이해하고, 키쌈들이 이끄는 소그룹 시간에는 자신들의 캐릭터를 그려 소개하고, 코로나19와 관련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마지막으로 다시 전체 모임을 갖고 사다리타기 게임을 통해 이후 지역별로 다시 한 번 만나는 시간을 정했다.

전국키다리모임의 즐거운 시간은 결코 프로그램 하나를 재미있게 기획했기 때문이 아니다. 전체 과정을 지원하고 키다리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게 독려하며, 무엇보다도 책임감을 갖고 끝까지 키다리들과 함께한 키쌈(운영진) 덕분에


몰입할 수 있는 재미있는 시간이 되었다.

### 어디서든 무엇이든 가능해! ZOOM IN!

그동안 키다리학교에서는 얼굴 맞대고 모여서 아이디어를 짜내고, 함께 어딘가를 찾아가고, 무언가를 만들며, 맛있는 음식을 먹었던 즐거운 활동은 당분간 못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온라인에서의 만남에서 무미건조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우리는 '만남'을 멈추지 않았고 많은 것을 경험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코로나19로 잃어버린 것들을 함께 아쉬워하고 그 와중에 우리가 얻게 된 것들을 나누며 희망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미래를 이야기하며 서로의 지역에 직접 찾아갈 수 없다면 각자 살고 있는 동네를 촬영해서 랜선여행을 해보자는 의견도 나왔고,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게임을 만들어 즐거운 만남을 시도해보자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이번 전국키다리모임을 통해 우리는 어디서든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경험을 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만나고 연대하는 시도가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 키다리 전국모임 참가자 소감

#### 박성수 키다리(순천YWCA)

코로나19 때문에 친구들도 만나지 못했는데 온라인에서라도 만날 수 있게 되어 좋았다. 온라인이다 보니 처음에는 어색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뻘컘했지만 재미있는 일이 더 많았다. 특히 전국에 있는 친구들을 한 자리에서 만났다는 것이 신기하고 재미있게 소통할 수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었고 다음 모임에는 서로를 자세히 아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다.

#### 류완희 키다리(대전YWCA)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만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만 만남이 진행되어서 아쉬움이 컸다. 하지만 이번 전국키다리모임에 참여하면서 전국에 있는 키다리 친구들이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았고, 소그룹 프로그램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고 소통해서 행복한 시간이 되었다!

# 새로운 100년을 위한 YWCA 조직구조를 연구하다



장수빈

연합회 조직혁신실행국 간사

## 새로운 100년에 맞는 YWCA 조직구조는 무엇인가

연합회 실행위원 은보딩 프로젝트 1그룹 중간보고회가 9월 3일(목) 화상회의 줌으로 열렸다. 은보딩 프로젝트는 실행위원들이 정책연구와 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논의 구조를 만들 필요성에 공감하여 지난 6월부터 시작되었다.

총 네 개의 그룹이 'YWCA혁신기획팀'과 '포스트코로나 YWCA운동기획팀'으로 나뉘어 YWCA의 구조변화, 운동의 방향, 앞으로의 사회변화와 주요 이슈 등을 주제로 논의하면서 YWCA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고 있다. 'YWCA 혁신기획팀'에 속한 1그룹은 '지속가능한 YWCA를 위한 연합회 법인 역할 재정립과 지배구조의 변화 설계'를 주제로 공부하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1그룹은 100주년을 앞둔 한국YWCA가 새로운 100년에도 지금과 같은 구조로 사회 환경, 정책, 시대 변화 가운데 시민단체로서 역할을 제대로 잘 할 수 있는 구조인가라는 문제의식에서 논의를 시작했다. 그리고 실행위원 스스로가 YWCA 구조와 실행위원 역할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지 못

했던 점을 공유하며 해결방안을 찾고자 했다.

1그룹 위원이기도 한 원영희 연합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은보딩은 지난 두 달여 동안 거의 매주 만나 '같은' 주제를 놓고 진지하게 '다른' 의견과 제안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었고 이 모두가 YWCA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한 제언들이라고 격려했다. 이어 이은영 위원(연합회 부회장)이 '이사회'의 기능과 역할, 'YWCA이사가 생각하는 이사의 역할'을, 함희경 위원(연합회 서기)이 'YWCA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이사회'를, 오영란 위원(연합회 회계)이 '목표설정과 자가 평가'를 주제로 발제했다.

## 이사회'의 기능과 역할

이은영 위원은 크게 비영리조직의 지배구조, 이사회'의 중요성, 역할과 기능, YWCA 이사회'에의 시사점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지배구조란 조직에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제도와 방법으로 비영리조직의 지배구조는 설립된 목적에 합당한 활동을 하는가를 감독하고 이에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내리며, 여러 이해당사자의 관점을 조정하는 구조

를 의미함을 설명했다. 비영리조직 지배구조의 특징으로 이사회'의 법적 지위, 역할, 책임에 대한 법률적 규정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경영책임관계의 설정이 어려워 지배구조 설계가 쉽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발표했다. 기존 연구들에서 나타난 비영리조직 이사회'의 역할은 크게 '전략적 활동', '조직운영', '자원계획'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동안 실행위원회 역할이 어디에 집중되었는지 파악하고 보다 중요한 곳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울 것을 제안했다.

## YWCA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이사회

함희경 위원은 조직의 주기를 '탄생, 성장, 성숙, 회춘' 단계로 나누는 조직생애주기이론(Adize, 1998)에 따라 YWCA 조직이 현재 어느 단계에 위치해 있는지 확인하고, 우리가 가고 싶은 단계를 위해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YWCA와 유사한 조직들과 비교분석을 통해 지역분권화를 통한 조직혁신 이후 연합회가 각 법인/비법인사단의 협회(Association)로서 연대, 교육, 홍보, 사무행정의 역할을 담당하고 운동의 중심이 지역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비영리 이사회'에 대하여 실행위원으로서 요구되는 특성은 기독교적 정체성, 회원 및 리더양성, 대외 협력, 지역과의 협력이며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실행위원의 영성과 정체성이 필요하며 이사 교육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 YWCA이사가 생각하는 이사의 역할


지난 8월 'YWCA이사가 생각하는 이사의 역할'에 대해 회원YWCA 이사를 대상으로 4개 지역에서 회장단 4명, 이사 4명 총 8명을 전화인터뷰 한 결과를 공유했다. 이사의 역할에 대해 재정적 기여, 지역사회 네트워크 자원 기여, 회원활동의 구심점, 사명과 헌신이라고 응답했다. 아쉬운 부분으로서 전문성 부족과 운동성 미흡으로 사회를 선도하는 부분이 약하다고 답했다. 이은영 위원은 YWCA 이사들의 몰입과 헌신도가 높았고, 무엇보다 YWCA 운동성에 대한 깊은 고민을 엿볼 수 있었음을 말했다.

## 목표설정과 자가 평가

오영란 위원은 딜로이트라는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에서 연구한 '비영리조직의 이사회 거버넌스'를 통해 이사회'의 역할을 설명했다. 이사회'는 전략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이사들이 역량과 재능을 헌신하며 조직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관리감독 한다는 것이다. YWCA 경영가이드 라인에도 이사회' 역할을 규정하고 있는데, YWCA 이사로서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자가평가를 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 실천적 연구로 진행될 것을 응원하다

이날 은보딩 1그룹 중간보고회는 지역대표 실행위원들과 지역위원장들도 참여해 논의 내용을 공유하며 소감을 나누었다. 홍순옥 동부지역위원장은 "부산YWCA에서도 시도해보고 싶은 프로그램으로, 자원활동가와 실무활동가가 함께 공부하는 것 자체가 소통의 장이 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이론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실제적인 연구"로 진행될 것을 응원했다. 조종남 실행위원은 "4그룹 참여위원으로서, 소그룹을 통해 깊이 있게 논의를 이어가니 친밀감이 생겨서 좋다. 서울YWCA에도 은보딩 모임을 제안했다.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활성화되면 좋은 결과들이 만들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윤정에 경기지역위원장은 "이러한 진지한 논의가 이어지는 것을 보니 YWCA가 미래가 밝고 긍정적으로 생각된다"고 소감을 나누었다. 조애숙 서부지역위원장은 "연구 결과를 공유해주어서 감사하다. 이사들의 역할에 공감하며 반성도 했다. 여수YWCA 이사님들과도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김광희 중부지역위원장은 "열정적으로 일하는 연합회로 인해 회원YWCA가 도움을 많이 받는다. YWCA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말했다.

은보딩 1그룹은 중간보고회에서 제안된 사항을 반영하여 '실행위원회를 포함한 새로운YWCA 거버넌스', '실행위원의 성과평가 모형 개발', '이사 훈련 프로그램' 등을 주제로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다. 



피해입은 토지면 주택과 돼지축사방문

## 전남협의회, 지역 간 연대로 이웃의 어려움을 돌보다

김은숙 목포YWCA 사무총장

### 수해 피해 즉시 YWCA가 달려가다

지난 8월 7일부터 사흘간 기습적인 폭우와 집중호우로 전남지역은 농경지 침수와 축사붕괴 및 가축매몰, 주택침수, 도로파손 등 공공과 사유시설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구례지역은 섬진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하천이 범람하여 구례읍 전체가 물에 잠기고 곡성은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전남 8개 지역이 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피해가 컸다.

순천YWCA는 구례지역 수해 피해 발생 즉시 5백만 원 상당의 탐차 한 대 분량의 생필품을 전달하고, 갑작스런 폭우로 당장 입을 옷도 없이 수해현장을 빠져나온 사람들을 위해 목포YWCA, 여수YWCA, 광양YWCA도 의류를 모아 수해현장에 전달하고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 전남YWCA(순천, 목포, 여수, 광양) 연대하다

이번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과 지역민들을 돕기 위해 전남YWCA가 연대하여 모금과 봉사활동을 실시하던 중 연합회가 이 소식을 접하고 전국 YWCA를 통



도배분류작업 봉사활동



수해민을 위한 기도

하여 긴급모금을 제안했고, 그 결과 1천9백5십만 원이 전남YWCA협의회로 전달되었다. 전남YWCA협의회를 진행한 결과 전달된 모금액은 전남 구례군과 전북 남원시를 지원하기로 결정되었다.

전남지역에는 가장 피해가 심한 구례군 양정마을 축산농가 10가구와 토지면 토지교회 성도 중 주택과 돼지축사가 완전히 침수되어 폐해가 된 가구에 모금액을 전달했다. 그리고 침수로 인해 도배가 필요한 구례군 주택, 마을회관, 경로당 등에 나누어줄 후원받은 도배지를 색상별, 크기별로 분류하는 봉사활동도 실시했다. 또한 전북지역은 남원YWCA를 통하여 가장 침수피해가 큰 남원시 금지면 하도마을 일곱 가구와 금남교회와 사택 복구에 모금액이 전달되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YWCA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어려운 공동체를 생각하는 전국 회원YWCA의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져서 전남지역과 전북지역 이재민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었다. 혼자서는 불가능하지만 YWCA라면 가능하다. YWCA라는 우산 아래 모인 전국 회원YWCA가 함께 하기에 가능하다.

##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폭력을 막는 사회환경을 만든다”

### 편집실

YWCA성폭력시설장위크숍이 ‘차별금지법과 반성폭력운동’을 주제로 9월 24일(목) 온라인 회의 중에서 열렸다. YWCA성폭력시설, 회원YWCA 활동가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김오매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의 강연에 이어 참가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위크숍 1부 순서에서 김오매 부소장은 ‘여성폭력 피해지원 현장, 차별금지법을 만나다’를 주제로 올해 발의된 차별금지법이 성폭력 예방과 방지, 성범죄자 처벌 등에 지니는 의미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김 부소장은 먼저 여성폭력 피해자를 돕고 상담하는 성폭력시설장들에게 <여성주의상담의 전복적 대화>의 저자인 로라 브라운의 ‘여성주의 상담’을 소개하면서 여성주의 상담자는 ‘정상적인’, ‘자연적인’, ‘기대되는’ 것에 관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고정관념이 무엇인지 물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성차별과 혐오에서 비롯되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차별금지법이 무슨 의미를 지니는지 ‘평등과 차별금지’를 중심으로 내용을 이어갔다.

이미 세계인권선언(1948. 12. 10)에서 인권의 불가변성을 선언했으며 1966년 채택된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이후 단순한 차별금지를 넘어선 사실적 불평등의 제거, 평등증진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의무를 강조했으며 차별금지사유(성별, 장애, 종교, 나이, 성적지향 등)와 차별금지영역(고용에서 사회전반으로)이 확대되면서 포괄적인 차별금지/평등법제로 발전하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 1항을 통해 헌법상 평등권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차별금지법은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무총리에 ‘차별금지법안’을 권고한 제17대 국회에서부터 시작되었으나 현재까지 정부의 법 제정은 유예되고 있다. 차별금지

법 사태는 소수자들의 시민권 삭제, 각종 인권 법·조례·정책의 후퇴 그리고 증오·혐오정치가 강화되는 결과를 만들었다.

2015년, 2017년, 2019년 유엔 위원회에서는 “한국정부가 출신지, 성적 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했으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대한민국 제8차 정기보고에 대한 최종견해(2018.3.9)는 “(중략)여성에 대한 교차적인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채택할 것을 권고”했다.

끝으로 김 부소장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구체적인 차별 판단 기준이 마련되고 보다 효과적인 구제 수단이 도입되어 차별시정을 위한 실제법적 근거와 물적 기반이 체계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각 성폭력 시설의 활동에도 여러 가지 제약을 가져왔다. 외부활동이 제약되고 가정 내 머무는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여러 형태의 가정폭력이 더욱 증가하고 있지만 가정폭력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분리하기 어렵게 되는 상황에서 상담과 보호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성폭력 관련 시설장들은 코로나라는 한계 상황에서도 피해자 보호와 상담에 최선의 방안을 서로 공유했다. 또한 성차별이 만연한 곳에서 성폭력이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성차별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져서 성폭력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혐오와 차별 등 복합차별에 대한 구제제도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함께 나누었다.

# 기후위기와 농민기본소득

## 차흥도

감리교 농촌선교훈련원 원장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가 6월 23일 국회 정문 앞에서 '농민기본소득 입법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농업·농촌의 소멸을 막으려면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반영한 농민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11개 회원YWCA(남원, 대구, 목포, 사천, 의정부, 전주, 제주, 천안, 충주, 통영, 하남)에서 773명이 농민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서명에 동참했다.

‘코로나19’는 엄청난 재앙이다. 현재진행형으로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거리두기’ 외에는 별로 없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이 제까지와는 다른 삶의 패턴을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는 잠시나마 인간의 끝없는 욕망을 멈추게 했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였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이었다. 인간의 욕망은 여가서 멈추지 않고 기회를 엿보아 다시 춤을 추고 있으며,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는 인간의 욕망은 코로나19를 한국뿐 아니라 전세계에 다시 확산시키고 있다.

그런데 기후위기는 코로나19에 비할 바가 아니라 한다. 코로나19가 잠시 지나가는 태풍이라면 기후위기는 멈추지 않는 쓰나미라 한다. 코로나19는 백신이 만들어지면 된다지만 기후위기는 해결책이 없다. 더 늦기 전에 욕망의 질주를 멈춰야 한다. 우리 모두 살아가려면.

### 인간의욕망이 초래한 기후위기

기후위기는 전 세계에 식량 위기를 초래한다. 0.5도만 기온이 더 올라도 식량 생산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이렇게 되면 세계 각국은 즉시로 식량안보를 위한 봉쇄정책을 실시하게 될 것이고, 곡물의 80%를 수입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안보에 있어서 공백이 생기게 되는 위험한 문제다. 식량 위기는 소위 말하는 글로벌푸드시스템을 붕괴시킬 것이다. 이 시스템이 붕괴되면 돈이 있어도 곡물을 살 수 없는 지경이 되고, 비교우위에 입각한 농산물수입정책의 허구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정책의 실패는 곧 국가의 식량 위기를 초래하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를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 식량자급율이 22%에 불과한 우리는 대안을 철저히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해나가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한국형 그린뉴딜’에는 이런 위기감을 느낄 수 없고, 그 중심 내용에도 농업과 먹을 거리에 대한 준비가 없다. 참으로 심각한 문제다.

기후위기는 인간의 욕망이 초래했다. 이런 인간의 끝없는 욕망은 ‘성장과 개발’을 인류사회의 최우선과제로 만들었고, 이의 성과를 ‘문명의 발전’으로 칭송하였다. 그러나 ‘달도 차면 기우’는 것처럼 인간은 스스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지속가능하지 못함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다시 ‘지속 가능한 사회’라는 명제를 내세우고 이에 합당한 ‘개발과 발전’을 하기로 합의했다. 기후변화와 관련해 산업혁명 이전보다 지구 온도를 2℃ 이상 상승하지 못하게 하자는 파리기후변화협약(2015)을 맺고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순 제로를

달성해야 한다는 IPCC(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간 협의체)가 발표한 <1.5℃ 특별보고서>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지만, 2017년 6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 협약에서 탈퇴한다고 선언했고, 우리나라도 OECD 국가 중 이산화탄소 배출증가율 1위를 차지하는 등 세계에서 ‘기후악당’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형편이다.

그렇다면 이번 ‘한국형 그린뉴딜’에는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라도 탄소배출을 절감하기 위한 획기적인 정책들이 제시되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언급은 미미하고 오히려 환경단체들로부터 이명박정부의 녹색성장과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의 합작품이라는 조롱까지 듣게 되었다. 왜냐하면 이 ‘한국형 그린뉴딜’이 민관이 같이 논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관료들만의 작품이었기 때문이다.

코로나19와 기후위기는 인간의 욕망에 기인하였지만 ‘문명의 전환’을 가속화시키며, 역설적으로 스스로를 돌아보며 ‘삶의 패턴’을 바꾸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 농정의대전환으로 기후위기해결에 동참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농정의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도 우리 농업에서 탄소배출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농정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 그렇다면 그동안 화석연료에 기반한 고투입/산업형 농업에서 저투입/생태농업으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저투입/생태농업은 필연적으로 대농/기업농(전체 농민의 약 8%) 위주의 농정을 중소가족농(전체 농민의 약 92%) 위주의 농정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 농민의 평균 농업소득(농사만으로 얻는 소득)은 약 1천만 원 정도다. 이것도 대농/기업농이 포함되어 그렇고 이들을 빼면 약 750만 원에 불과하다. 게다가 중농을 뺀 가족농/소농(1ha미만의 농민으로 우리나라 농민의 약 80%)만으로 보면 약 45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농민들은 농사에 전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농업정책은 농민을 행복한 삶으로 이끌지 못하고 있다. 농민이 행복해야 온 나라가 행복해질 수 있는데 말이다.

### 농정 대전환의 첫걸음, 농민기본소득

농민을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농정 대전환의 첫걸음은 농민기본소득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농민기본소득은 헌법 10조에 규정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국민행복추구권’으로부터 출발하며,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다원적 기능과 역할 그리고 이에 따른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 포함되어 있다.

농민당 매월 30만 원의 농민기본소득이 실시되면 무엇보다도 농민의 삶이 질적으로 향상될 것이다. 우리나라 농가는 평균 2.3인으로 농민기본소득의 실현으로 한 농가당 일년에 약 750만 원의 농민기본소득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생존을 위한 농사에서 농부권(중지와 농법선택권)이 회복되는 저투입/생태농업으로 전환이 이루어지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렇게 탄소배출을 줄여가는 저투입/생태농업은 대농/기업농에서는 불가능하다. 이제까지 농정은 규모화 농정으로서 대농을 지원하는 정책이었는데, 농민기본소득으로서 중소가족농을 위한 농정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농민기본소득의 실현은 농정전환의 완성이 아니라 전환의 첫걸음이다.

게다가 청년을 비롯한 도시민들의 귀농을 더욱 촉진할 것이다. 현재 매년 이뤄지는 귀농/귀촌의 수는 약 50만 명이며, 이들 중 39세 미만의 청년세대는 약 50%에 달하고 있다. 농민기본소득은 농촌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귀농인들의 정착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보다 가치 있는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청년들의 귀농을 촉진하게 되어 청년 일자리 해소뿐 아니라 도시민들의 농촌유입으로 도시 중심이 아닌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YWCA도 함께 참여하고 있는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는 현재 100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청원을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도 YWCA 회원들의 기도와 참여를 부탁한다.

# 쌈닭도 명랑하면 사랑받나요?

## - 보건교사 안은영

김신애

연합회 실행위원, 목사

### 기괴하고 이상하다 그러나

별생각 없이 '보건교사 안은영'을 보기 시작했는데 중간에 끊을 수가 없어 6편을 내리 보고 말았다. 상상 이상의 기괴한 풍경이 폭죽 터지듯 연달아 펼쳐지는 통에 눈을 돌릴 수가 없었다. 이 드라마는 낯설고 이상하다. 보지 않고는 그 이상함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어서 친구들과 함께 두 번을 더 봤다.

안은영(정유미 분)은 젤리(일종의 액토플라즘, 심령체의 물질화 현상)를 보는 사람이다. 대부분의 젤리는 때가 되면 부서지지만 어떤 젤리는 다른 존재를 해친다. 아무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구하는 운명을 타고난 그녀는 손에 비비탄 총과 무지개 야광경을 들고 나름 진지한 싸움을 이어간다. 목숨을 건 전투 끝에 학교 사람들의 목숨을 구해주는 게 한두 번도 아닌데 그녀의 투쟁은 하찮고 귀엽다. 알아주는 사람도 거의 없다.

오래 봐야 예쁘다더니 안은영도 그렇다. 삐죽 뺨은 단발머리에 화장기 없는 얼굴, 심드렁한 표정에 영똥한 대사가 처음에는 까끌까끌 하더니 두 번 보고 세 번 보니 마침내 사랑스러워졌다. 결국 이경미 감독이 시청자들에게 공들여 보여주고 싶었던 세계는 아마 그런 거였나보다. 서투르고 끔찍하고 보기 싫은데 알고 보면 어쩔 수 없는 삶의 진실을 품고 있는, 애처롭고 안아주고 싶고 사랑스러운 그런 것들 말이다.

“(젤리를 시각화할 때) 기괴하고 혐오스럽지만, 귀엽고 또 보고 싶기도 한 경계를 뚫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처음 겪어보는 난감한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다

### 는 게 내 욕심이었다.”(이경미 감독 인터뷰 중)

넷플릭스 시리즈 '보건교사 안은영'은 원작소설과 달리 은영이 자신의 능력을 받아들이고 직업적 소명의식을 갖게 되는 성장 드라마로 기획되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영특함'에 따라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고, 제각기 보이는 풍경에 따라 인생의 길을 결정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타고 난 영특함으로는 충분치 않다. 세계는 넓고, 아무리 살아도 아직 보지 못한 풍경이 너무 많다. 그래서 다 큰 어른도 계속해서 성장한다.

### 보이는 사람에게만 보인다

어린 시절 나도 꽤 영특한 아이였다. 아이답게 떠들고 까부는 것보다 관찰하고 읽는 편에 더 빨리 성장했다.

내가 '여자 취급'을 싫어하며 자란 건 그래서인 것 같다. 누군가를 '아이'로 대하지 않고 '여자아이'로 대할 때는 좋은 일이 별로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았다. 고무줄이 끊기거나 공깃돌을 가로채이거나 치맛단이 들춰지는 건 개중 단순한 축이었다. 내가 동의한 적도 없는데 해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정해져 있었고 거기서 벗어나면 벌나 보였다.

나는 그냥 별난 아이로 살기로 했었다. 화장이나 옷, 살림 등에 별 관심도 없었을뿐더러 부러 멀리하기도 했다. 여자 아이가 되지 않으면 '보통의 인간'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았다. 여자도 실은 꽤 즐겁다는 걸 나이 마흔을 넘겨야 알게 됐다.

원래 가난과 착취, 질병과 차별은 보이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것이다. 가진 사람들은 모르는 걸 못 가진 사람만 안다.



보건교사 안은영(2020)  
주연 : 정유미, 남주혁  
제작 : 이경미, 정세랑

편한 사람들은 모르는 걸 불편한 사람만 안다. 가해자와 방관자는 모르는 걸 피해자와 연대자는 온몸과 온 삶으로 알 수밖에 없다. 한 번 눈이 뜨이면 다른 것도 계속 따라 보인다.

성차별은 알았어도 성폭력은 몰랐다. 대학시절 성폭력 피해자인 친구를 만나고 난 뒤로 나는 내가 꽤 운이 좋은 여자아이였다는 걸 알게 됐다. 성소수자인 이웃과 친구의 커밍아웃을 겪은 뒤 내 안에 있었던 편견들이 계속해서 부서지고 있다. 청사 앞 줄지어 늘어선 농성 천막들을 방문했던 날 나의 광화문 풍경이 바뀌었다. 깨끗한 상가와 아파트 단지를 보면서 쫓겨난 사람들을 생각했다. 누군가에게는 투명하기만 했을 거대한 추모 물결의 젤리에 뒤흔들리는 세계를 보았다. 암만 원색의 강렬한 조끼를 입고 목이 터져라 소리쳐도 안 보이고 안 들리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다. 볼 수 있어도, 볼 수 없어도 확실이 있다.

### 화사한 세상에 눈이 길들여져서는 곤란하다

차별과 폭력을 알아갈수록 내가 보는 세상은 조도가 낮아지고 점점 선명해진다. 날아오는 공에 맞지 않으려면 공을 끝까지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것은 도움이 된다. 화사한 세상에 눈이 길들여져서는 곤란하다. 어차피, 자꾸 보면 낯설지 않다. 나의 페미니스트 선생님은 그런 게 '피억압자의 인식론적 특권'이라고 했다. 특권이라니 기분은 참 좋은데 가끔은 우리만 자꾸 슬프고 지치는 게 억울하다. “누가 너를 이 세상에 자꾸 보내는거냐”고 떡살잡이라도 하고 묻고 싶을 때가 있다. 그럴 때 이제는 문득 강선(남주혁 분)

이 떠오를 것 같다.

강선: 내 말은 다치지 말고 유쾌하게 가란 말이야.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면서 살라고.


얼마나 훌륭하면 우리에게만 보이는 소름끼치고 끔찍한 진실 앞에서 안은영은 명랑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얼마나 현명하면 방금 전까지 젤리와 '신나 빠빠지게' 싸워 놓고 “이것은 요즘 유행하는 줌바댄스였다”며 머쓱하게 웃을 수 있을까? 그렇게 되면 우리 쌈닭들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살 수 있는 걸까?

### 일단 내 앞에는 하나님이 열어두신 문이 있다

내 지난 시간에 빠르게 훑혀 바뀌어 온 풍경들을 되짚어 보면 이쪽에서 세상으로 달려가는 건지 세상이 이쪽으로 달려오는 건지 헷갈린다. 어쩌면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이 뽕뽕 달리는 것들이 부딪혀 벌어지는 교통사고의 연속인지도 모른다.

그리스도인들은 증인 즉 '본 사람들'이다. 본 것을 본 대로 말하고, 본 것을 외면하지 않을 사명을 품은 사람들이다. 땅 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생각해 보자. 또 박해의 시대를 건너가던 사람들에게 주신 묵시의 말씀을 기억해 보자.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계3:8)”

아모르파티(Amor fati, Love of fate). 일단 내 앞에는 하나님이 열어 두신 문이 있다. 그 풍경을 충분히 탐색하고 힘껏 꺾어안아도 보고 용감하게 사랑해 볼 일이다. 낯설 때는 두렵고, 두고 보면 사랑스러운 그것들과 함께 춤추는 것이 바로 우리의 결정적 사명이니까. 

**‘생명의바람, 세상을 살리는 한국YWCA’를 위한 정오기도**

‘생명의바람, 세상을 살리는 한국YWCA’를 위한 정오기도가 9월 20일(월) 30주차 정오기도를 끝으로 종료되었다. 지난 2월 20일(월)부터 7개월간 정오기도를 통해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해결되고, 올해 진행될 연합회와 회원YWCA 재구조화 여성 그리고 한국YWCA회관의 변화과정을 위해 함께 기도했다.

**제3차 길위의 평화포럼**

제3차 길위의 평화포럼이 8월 27일(목) 화상회의 중에서 열렸다. 고유경 국제여성자유평화연맹(WILPF) 코디네이터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한미 관계’를 주제로 강의했다. 회원YWCA 자원·실무활동가, 탈북여성 등 포럼단 및 참관 회원을 포함하여 총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군사합동훈련을 비롯한 한미 동맹의 과거와 미래, 유엔사 등을 통해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세한 내용은 P.18-19)

**2020 전국YWCA 키다리모임**

전국YWCA 키다리모임이 8월 29일(토) 화상회의 중에서 열



렸다. 코로나19로 대면활동을 하지 못했던 70여 명의 키다리 학교 청소년들과 활동가들이 서로에게 희망을 주고 안부를 주고받기 위해 온라인에서 모였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게임 등을 통해 즐거운 활동 시간을 공유했다.

(자세한 내용은 P.34-35)

**디지털 YWCA아카이브 오픈식**

9월 1일(화) 디지털 YWCA아카이브를 오픈했다. 창립 100주년을 앞둔 한국YWCA는 역사기록을 보존하고 공유하고자 2019년 4월에 YWCA 역사관 '이제'를 개관하고, 올해 9월 디지털 'YWCA아카이브'(www.ywca-archive.or.kr)를 열었다. 이날 남산회관 2층 오픈라운지에서 오픈식을 열고 회원YWCA도 참



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도 중계했다.

(자세한 내용은 P.6-11)

**실행위원 은보딩 프로젝트 제1차 중간보고회**

실행위원의 역할 전환 모색을 위한 '실행위원 은보딩 프로젝트' 제1차 중간보고회가 9월 3일(목) 화상회의 중에서 열렸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는 '지속가능한 YWCA를 위한 연합회 법인 역할 재정립과 지배구조의 변화 설계'를 주제로 연구하는 1그룹이 '이사회의 기능과 역할'을 중심으로 중간발표를 했다.

(자세한 내용은 P.36-37)

**2020 한민족 여성평화순례**

**한라에서 백두까지 '홀로 걷는 평화순례'**



2020년 한민족 여성평화순례 한라에서 백두까지가 9월 16일(수)부터 23일(수)까지 '홀로 걷는 평화순례'로 진행되었다. 각자 속한 곳에서 순례의 의미를 담은 건기를 통해 평화의 의미를 성찰하고 평화를 염원하며 기도했다. 평화순례단 98명, 36개 회원YWCA, 연합회, 일반참가자 등 350여 명이 참여했다.

(자세한 내용은 P.12-17)

**찾아가는 탈핵 불의날 캠페인**

찾아가는 탈핵 불의날 캠페인을 9월 21일(월) 속초YWCA가 주관했다. 속초YWCA 자원·실무활동가 15명과 연합회 실무활동가가 속초시청 앞에서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핵발전의 위험을



알리는 침묵시위로 진행했다.

**YWCA 성폭력 관련 시설장 워크숍**

'차별금지법과 반성폭력운동'을 주제로 한 YWCA 성폭력 관련 시설장 워크숍이 9월 24일(목) 화상회의 중에서 열렸다. 김오

매 부소장(한국성폭력상담소)이 올해 발의된 차별금지법이 성폭력 방지와 성범죄자 처벌 등에 지니는 의미를 중심으로 강의했다. 8개 회원YWCA(거제, 논산, 대전, 사천, 안양, 울산, 제주, 충주) 성폭력 관련 시설장들은 차별금지법이 성폭력 근절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함께 나누었다.

(자세한 내용은 P.39)

**제18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수상자 선정 및 시상식 알림**

일시 : 11월 17일(화) 오후 2시

※ 온·오프라인으로 시상식 진행 예정

대상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젊은지도자상 : 임선애 영화감독(영화 69세 제작)  
 특별상 : 추적단 불꽃(텔레그램 n번방 최초 신고, 기록자)

**YWCA 1922 장학금 모금현황**

(2020. 8. 1 ~ 2020. 9. 30)

| 구분               | 기부자명단  | 금액                |
|------------------|--|-------------------|
| 개인               | 김미현, 이덕자, 배창빈, 양영심, 고복순, 김미선, 김은정, 김희영, 맹나래, 박누리, 이상희, 조은경 | 160,000           |
| 회원YWCA           | 충주YWCA, 대전YWCA, 순천YWCA, 세종YWCA                             | 1,160,000         |
| <b>8월~9월 모금액</b> |  | <b>1,320,000</b>  |
| <b>누계</b>        |  | <b>11,878,000</b> |

**북한어린이돕기 모금현황**

(2020. 8. 1 ~ 2020. 9. 30)

| 구분                                  | 기부자명단  | 금액               |
|-------------------------------------|--|------------------|
| CMS기부<br>(2020. 8. 1 ~ 2020. 9. 30) | 강승아, 강현중, 고세영(청주), 광지영, 구정혜, 국윤택, 권경미, 김가현, 김경숙, 김경희, 김근혜, 김기동, 김명희, 김미경, 김병호, 김상은, 김수연, 김수진, 김애련, 김영자, 김영현, 김은경, 김은영, 김정린, 김주영, 김주현, 김태연, 김혜경, 나척더르즈 돌람수렌, 남희숙, 명진숙, 문권희, 문미란, 문상순, 문인수, 민선영, 박미선, 박보람, 박성민, 박영순, 박용옥, 박은실, 박지영, 박진화, 박효정, 배인기, 배정미, 배창빈, 배한솔, 배한울, 백혜진, 송록희, 신명자, 신인숙, 심은옥, 안은화, 안정희, 양영심, 엄세현, 엄효정, 오시창, 오영란, 원영희, 유도희, 유빈, 유성희, 유수, 유명선, 윤수정, 윤혜식, 이남희, 이명혜, 이민정, 이순덕, 이영미, 이영숙, 이윤숙, 이은영, 이정숙, 이종경, 이종임, 이주영, 이지윤, 이찬형, 이천진, 이희숙, 이희정, 임진영, 임향옥, 장세영, 전배자, 전정미, 정경란, 정동신, 정서연, 정지유, 조성애, 조영미, 조은영, 진인식, 차경애, 천유란, 최수산나, 최지영, 최형선, 하은경, 한영수, 한혜경, 홍기자, 홍현정 | 3,200,000        |
| 개인 기부                               | 이행대, 조임근   | 20,000           |
| 회원YWCA                              | 전주YWCA, 창원YWCA, 평택YWCA   | 343,811          |
| 협력 교회                               | 황간임마누엘교회, 한양대여성교회  | 260,000          |
| 기관 및 단체                             | 레오니다스, 농협  | 121,550          |
| <b>합계</b>                           |  | <b>3,945,361</b> |

경기지역

고양YWCA

남궁혜경 국장

‘모두가 함께 누리는 차별없는 디지털사회를 위하여’



고양YWCA는 7월 1일(수) ‘모두가 함께 누리는 차별없는 디지털사회를 위하여’ 1:1 동행교육을 진행했다. 코로나 시대에 증가하고 있는 무인시스템에서 소외되고 있을 뿐 아니라 불평등을 경험하는 노인세대를 위한 프로젝트로, 각종 무인시스템(영화관, 식당, 패스트푸드, 공공기관 민원서류 발급기, 무인계산대, 기차표 및 지하철 승차권 예매기) 등을 모니터링하고 현장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고양YWCA는 모니터링과 교육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광명YWCA

박문경 사무총장

‘에너지의 날 포럼’



광명YWCA는 8월 20일(목) 광명시청에서 ‘에너지의 날 포럼’을 진행했다. 강사로 나선 이현석 전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기후위기와 에너지’를 주제로 급속히 진행되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에너지정책 원칙으로서 ‘정의로운 전환’을 강조했다. 에너지 전환 시 사회시스템 변화로 일자리를 잃게 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 마련도 강조했다.

남양주YWCA

이종은 팀장

생활정치학교

남양주YWCA는 9월 2일(수)부터 10월 14일(수)까지 남양주시 양성평등기금사업 비대면 ‘생활정치학교’를 진행했다. 정치 환경의 변화 구조 및 평등한 지방자치 실현, 여성의 참여로 지역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는 정치 과제 모색 등을 내용으로,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실천과제를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총 15명이 주 2회 참석한 가운데, 10회차 수업을 진행했다.

부천YWCA

이현순 사무총장

여성의 삶을 엮다 ‘바늘과 실 A+’



부천YWCA는 8월 22일(목)부터 10월 29일(목)까지 부천시성평등기금사업 ‘바늘과 실A+’를 진행한다. 여성 참가자 16명이 매주 목요일 2시간씩 자수활동을 하며 봉사활동도 진행한다. 10회기 모임에서는 위기 청소년 정서지원 프로그램으로 자수 자원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성남YWCA

양혜원 간사

아이돌보미 보수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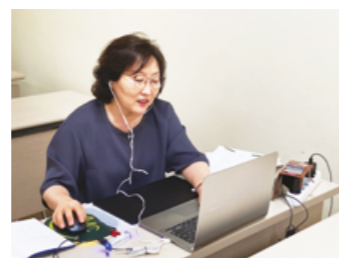


성남YWCA는 경기동부권역의 아이돌보미교육기관으로서 8월 6일(목)부터 8일(토)까지 여주대학교에서 아이돌보미 보수교육을 진행했다. 여주지역에서 활동 중인 아이돌보미 71명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교육,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예방을 주제로 한 전문가 보수교육을 진행했다. 수료생들의 전문가로서의 활동을 기대한다.

수원YWCA

강은진 주임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실 온라인 개강



수원YWCA는 8월 18일(화) 수원시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실 개강식을 온라인으로 진행하였다. ‘수원YWCA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실’은 결혼이민여성들

을 위한 초급-고급 한국어 교육과 독서와 글쓰기(특별반) 수준별 한국어 교육으로 진행되며, 국내적응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한다. 수원YWCA는 수원시 결혼이민자와 다문화 가족의 한국 사회 조기정착을 돕기 위해 2008년부터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실’을 수원시와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다.

안산YWCA

홍지인 팀장

법인창립총회

안산YWCA가 8월 24일(월) 총 97명의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 법인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안산YWCA는 법인창립총회를 통해 지역법인 회원YWCA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 법인으로서 안산YWCA는 기독교여성시민운동체로서 목적에 충실한 지역운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안양YWCA

신재화 간사

미니 바자회

안양YWCA는 9월 22일(화) 미니 바자회를 열고 추석기획전으로 사전판매를 진행했다. 맛간장, 닭갈비, 불고기, 레몬청, 패션 후르츠청, 꽃감, 와인 등 다양한 품목을 준비하여 안양YWCA와 함께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물품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

의정부YWCA

김홍례 부장

청소년 안전리더 양성교육과 안전캠프

의정부YWCA는 8월 26일(수)부터 9월 12일(토)까지 ‘청소년 안전리더 양성교육’을 진행해 15명의 ‘헬로나’ 안전리더를 배출하였다. ‘헬로나’(Hello+na)는 자신의 안전과 안녕을 뜻하며 만든 명칭으로, ‘나의 안전이 곧 우리의 안전문화 만들기’에 앞장서는 Y-탄이라는 사명을 담고 있다. 이어 ‘헬로나’들이 9월 19일(토) 지역 청소년들 100명과 함께하는 ‘헬로나의 별난 안전캠프’를 온라인으로 진행해 안전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청소년들이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하남YWCA

김상미 간사

수도권지역 경제교육

하남YWCA에서는 8월 10일(월) 꿈쟁이동산 지역아동센터에서 초1-6학년을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진행했다. 돈을 아껴쓰는 방법, 빙고게임을 통해 수입과 지출의 계획을 세우는 방법, 저축을 통해 얻는 이자로 수입을 늘리는 방법 등을 교육했다. 똑똑한

소비와 저축의 필요성을 배우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동부지역

거제YWCA

박숙혜 간사

폐기도서를 활용한 업사이클링-나만의 팝업북 만들기



거제YWCA모오리돌작은도서관은 8월 19일(수)-2일(토) 2회에 걸쳐 거제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에서 초등학생들을 위한 ‘나만의 팝업북 만들기’를 진행했다. 오래되거나 훼손되어 버려지는 도서에 디자인을 더하여 어린이 스스로 동화를 재구성해봄으로써 창의력과 상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환경보호의 중요성도 생각해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을 만들었다.

김해YWCA

배정숙 부장

자원재사용 의식 WAKEUP! 자원순환 UP!



김해YWCA는 9월 9일(수) ‘자원순환활동’을 전개했다. 지난 6월부터 시작한 ‘자원순환활동’으로 세탁소 옷걸이와 종이가방 재활용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 김해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작업복 전문세탁소인 ‘가야클리닝’에 그동안 모은 500여

## 회원YWCA 소식

개의 옷걸이를 전달하고, 수거된 종이가방을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전달하여 비닐봉지 대신 종이가방을 사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해YWCA는 앞으로도 지역 내 자원순환활동을 지속하여 자원 재사용을 통한 환경보호 운동에 동참할 것이다.

### 대구YWCA 김보현 간사

#### 창립총회



대구YWCA는 8월 7일(금) 사단법인 대구YWCA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개회예배를 드린 후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원영희 연합회장의 격려사, 창립 경과보고 및 설립취지문 승인, 정관심의, 회장-임원 선출 등을 진행했다. 97년의 역사를 이어온 대구YWCA가 사단법인으로서 지역사회에서 더 큰 책임을 가지고 시민단체로서 역사를 이어나갈 것이다.

### 마산YWCA 강현영 간사

#### 양성평등이 있는 식탁 캠페인



마산YWCA는 9월 15일(화) 일가정양립 문화를 확산하고자 '양성평등이 있는 식탁' 캠페인을 진행했다. 가정과 직장에서의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응원하는 캠페인으로,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마산의료원 의료진과 직원을 응원하고자 간식 400인분도 마련하여 전달했다. 총 3차례 진행한 본 캠페인에서는 푸드트럭 또는 간식을 준비하여 마산수출자유지역, 이가자혜어비스, 미래산부인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의 근로자에게 간식을 지원했다.

### 부산YWCA 여진경 부장

#### '생선대가리를 먹는 여자' - 영화로 보는·그림책으로 만나는 성평등 이야기



부산YWCA는 9월 10일(목)부터 24일(목)까지 여성 10여 명이 함께 하는 '영화로 보는·그림책으로 만나는 성평등 이야기'를 진행했다. 14일(월) 22일(화)에는 영화 <82년생 김지영> <찬살이는 복도 많지>를 보고, 10일(목) 18일(금) 24일(목)에는 그림책 <이상해> <무슨 벽일까?> <돼지책> <벌집이 너무 좁아>를 읽으며 성평등 이야기를 나누었다. 성역할 갈등과 혼란들, 성역할 고정관념, 돌봄과 가사노동, 사회문화적 한계와 고민들, 여성에게 일의 의미, 여성 노동의 가치에 대해 살펴보고 여자로서의 본분과 존재라는 물음 사이에서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과 성인권에 대한 인식변화를 함께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 사천YWCA 정희경 간사

#### 나트륨·당류줄이기 청소년교육



사천YWCA는 8월 5일(수) 삼천포여자고등학교에서 나트륨·당류 줄이기 청소년교육을 진행했다. 청소년들 스스로 나트륨과 당류 적게 먹기를 실천하고 건강한 식생활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이론교육을 진행하고 요리실습으로 샌드위치 만들기를 해보았다.

### 안동YWCA 남수정 부장

#### 버려지는 쓰레기의 가치발견 캠페인

안동YWCA는 9월 4일(금) 안동중앙신시장 상가거리에서 '버려지는 쓰레기의 가치발견-아이스팩 재사용 캠페인'을 진행했다. 지역 아파트 8곳에 안동YWCA가 설치한 아이스팩을 수거하여



세척한 후, 시장 상인회와 협의하여 필요로 점포 상인들에게 배부하였다. 시범적으로 앞으로 주 1회 두 달간 지속할 예정이며, 지역 청소행정과와 협의 후 아이스팩 재사용 홍보사업을 확대해갈 예정이다.

### 양산YWCA 김유경 간사

#### 제13회 여성들의 이야기터



양산YWCA는 9월 8일(화)에 '제13회 여성들의 이야기터'를 개최했다. 발표자와 심사위원, 내부 관계자 등 20여 명만 현장 참여한 가운데 10명의 발표자가 열띤 발언을 펼쳤다. 산재사고로 절망 속에서도 삶에 희망의 불을 켜 최미혜(46, 물금읍)씨가 대상을 차지했다. 양산YWCA는 매년 본 행사를 개최해 지역사회 여성이 주체가 되어 자신의 주장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

### 울산YWCA 김예린 간사

#### 청소년 평화행진



울산YWCA 청소년 평화행진이 8월 19일(수)부터 21일(금)까지 2박 3일간 전라북도 일대에서 있었다. '청소년, 평화의 바람 타고 통일로!'라는 주제로 3.1독립운동과 애국선열을 기념하는 기념관과 근대화거리로 탐방했다. 평화행진을 통해 청소년들이 평화통일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확장하는 기회가 되었다.

### 진주YWCA 김태진 팀장

#### 공정무역여성활동가 양성과정



진주YWCA는 9월 15일(화)부터 29일(화)까지 매주 화, 목 총 5회기에 걸쳐 15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나눔과 순환의 아름다운 세상-공정무역여성활동가 온라인 양성과정'을 진행했다. 왜 공정무역이 필요한지, 공정무역과 마을 운동, 공정무역이 만드는 변화들, 공정무역과 공정여행에 대해 알아보고 인권과 환경을 생각하는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다. 향후 교육생들이 '지역민과 더불어 사는 착한 여행'을 기획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지역 내 공정여행과 공정무역에 대한 활발한 움직임과 관심이 증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진해YWCA 이재경 사무총장

#### 진해Y-틴 환경기자단 모임



진해YWCA는 9월 12일(토) Y-틴 환경기자단 모임을 가졌다. '일회용품 줄이기'를 주제로 소그룹별로 일회용 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한 에코백을 만들었다. 환경을 지키기 위해 일회용품 줄이기를 다짐하며 친구들에게도 내용을 전달하기로 했다.

### 창원YWCA 박선민 간사

#### 창원시의회 여성의원과 의간담회



창원YWCA는 8월 21일(금) 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한 '창원시의회 여성의원과 의간담회'를 열었다. 창원시의 성평등 정책 현황과 상임위원회 성별 구성 현황을 알아보고, 창원시 여성 일자리 등에 대해 논의했다. 창원시의회 여성의원과 창원YWCA는

## 회원YWCA 소식

향후 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한 안전 및 조례 구축을 위해 서로 협력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창원시의회의 여성의원 9명 중 5명의 의원과 여성당 경남도당 공동위원장, 전 경남여성회 대표, 창원YWCA 이사 등이 참석했다.

### 통영YWCA

변은실 팀장

#### 배우고 함께하는 양성평등교육



통영YWCA는 지난 6월부터 경상남도 양성평등교육지원사업 '배우고 함께하는 양성평등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10회기의 양성평등 자원봉사자교육을 통해 성역할 고정관념을 바로잡고 인식변화와 해결과제를 마련하고자 한다. 교육 수료생들은 '인형극으로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육'으로 지역사회 공헌의 기회를 실천하고 있다.

### 포항YWCA

김민경 간사

#### 지역사회 성인지 거버넌스 구축회의



포항YWCA는 8월 28일(금) '포항시 성인지 감수성 인식조사'를 위한 성인지 거버넌스 구축 회의를 개최했다. 포항YWCA는 성인지 감수성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방향과 과제를 점검하고 성인지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성인지 거버넌스 구축, 캠페인, 시민 홍보 등의 세부사업도 전개할 계획이다. 포항YWCA는 성차별을 해소하고 포항지역에 양성평등의식과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한다.

## 북부지역

### 강릉YWCA

이신애 부장

#### 이사교육

강릉YWCA는 7월 31일(금) 9명, 8월 11일(화) 7명의 이사들이 참



석한 가운데 강릉YWCA 이사교육을 진행했다. 박금자 초대회장과 오선숙 사무총장이 '목적문을 통해 보는 YWCA'와 '시민사회와 YWCA'를 강의했다. 이어 강릉YWCA가 당면한 이사, 회원 수 부족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며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 동해YWCA

전민지 팀장

#### 달동무 '엄마가 딸에게 보내는 마음'



동해YWCA는 8월 20일(목) '달동무-엄마가 딸에게 보내는 마음' 동아리 모임을 진행했다. 면생리대를 제작하는 동아리로서, 제작뿐만 아니라 면생리대의 중요성을 알리고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실천한다. 앞으로 두 차례 모임을 더 진행하고, 제작된 면생리대는 동해시 여학생들에게 무료로 보급할 예정이다.

### 서울YWCA

성지희 팀장

#### 생명사랑 신혼부부학교



서울YWCA는 9월 12일(토), 27일(일)에 유한김벌리와 함께하는 생명사랑 신혼부부학교를 개최했다. 온라인을 통해 총 5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신혼부부학교는 12일(토)에 이론편수업:가정경제학·부부소통학 강의를 27일(일)에는 서울숲을 배경으로 부부행복찾기 실천편이 이어졌다. 2009년 개교해 올해로 12년째를 맞는 생명사랑 신혼부부학교는 신혼부부가 평등과 존중을 바탕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는데 소중한 마중물이 되고 있다.

### 속초YWCA

장은아 간사

#### 실무활동가 워크숍

속초YWCA는 8월 13일(목)부터 14일(금)까지 속초 및 고성일대에서 실무활동가 워크숍을 진행했다. 활동가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연극으로 풀어가는 젠더트러블, 젠더트라우마 교육을 실시했다. 이어 고성 해상공원 및 초콜릿 박물관을 견학하고 속초문화회관에서 음악회를 관람하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다.

### 원주YWCA

정은영 간사

#### '아다 환경스쿨'



원주YWCA는 8월 9일(일)부터 12회에 걸쳐 '아(름다운) 다(음) 세대(를) 위한 환경 스쿨'을 진행했다. 원주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고 일상에서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도록 이론교육과 체험 등을 진행했다. 기후변화, 미세먼지, 물, EM에 대한 이론 교육과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도자기 컵 만들기, 미세먼지 잡는 화분 만들기, EM모기퇴치제, 아나바다 체험 등을 했다. 환경에 관심을 갖고 환경보호를 실천할 것을 독려했다.

### 인천YWCA

박희은 간사

#### 성평등 모니터단 양성 기초교육



인천YWCA는 유아·아동 콘텐츠에 대한 성인지 관점의 모니터링을 진행하고자 8월 11일(화)~12일(수)까지 성평등 모니터단 양성 기초교육을 실시했다. 한국여성민우회 강혜란 대표의 '미디어와 젠더'를 주제로 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시작으로 언론개혁시민연대 권순택 활동가, 정치하는 엄마들 강미정 활동가, 서울YWCA 이혜우 활동가의 강의를 통해 모니터링 사례를 듣고

실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 모니터링단은 EBS 공영방송의 유아·아동 콘텐츠를 대상으로 차별과 불평등을 조장하는 부정적 사례를 찾아내고 개선을 요청함으로써 성평등한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 서부지역

### 광양YWCA

허수진 팀장



#### 선물 꾸러미 전달

광양YWCA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여름휴가 기간을 맞아 더욱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이용 어르신, 거동불편 재가 어르신(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들에게 음식과 선물 꾸러미를 전달했다. 자원봉사자들의 후원으로 마련한 이번 선물 꾸러미를 통해 지역 소외계층을 돌보고 어르신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전달했다.

### 군산YWCA

신하은 간사

#### '씨네토크:Re-Think!'



군산YWCA는 9월 15일(화) 군산YWCA 회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성평등주간행사 '씨네토크:Re-Think!'를 개최했다. 영화'루스베이더 킨즈버그:나는 반대한다'를 상영한 후 김수진 강사(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진행으로 '다시 생각하기' 토크를 진행했다.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다짐을 나누었다.

## 회원YWCA 소식

### 남원YWCA

임진아 간사

#### 직원역량강화교육



남원YWCA는 9월 8일(화) '나를 이해하고 타인을 수용하다'를 주제로 직원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MBTI 검사를 통해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했다.

### 목포YWCA

곽수현 국장

#### 8·14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



목포YWCA는 8월 14일(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전라남도청에서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기리고, 올바른 역사의 고취를 위한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전라남도 직원을 대상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홍보와 전남도 내 위안부 생존자 유무를 묻는 인식조사를 통해 기림의 날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냈다. 행사를 마친 후 남악 중앙공원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을 찾아 헌화와 분향을 하며 이 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피해자들을 추모했다.

### 서귀포YWCA

김수진 팀장

#### 서귀포시행복드림아카데미 수료식



서귀포YWCA는 9월 4일(금) '2020 서귀포시행복드림아카데미'

수료식을 진행했다. 부동산 컨설팅 과정과 자서전 과정-서귀포BOOK살롱 등 두 개 과정으로 운영된 행복드림아카데미는 지난 6월 26일 개강해 매주 금요일 진행했다. 서귀포YWCA는 이후 학습동아리를 구성해 평생교육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 순천YWCA

신정옥 간사

#### 2020 청소년이 났다! 청춘불패



순천YWCA는 8월 13일(목)부터 14일(금)까지 Y-틴과 함께 농촌 봉사활동 프로그램인 '2020 청소년이 났다! 청춘불패'를 진행했다. 첫날은 오리엔테이션과 안전교육 및 성희롱 예방교육 후, 농업 직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날, 순천 용오름마을에서 잡초제거 등 농촌 일손을 도왔으며 생명숲돌봄센터 아이들과 함께 놀이부스와 체험부스를 진행했다. 농촌봉사활동을 통해 공동체 의식과 협동심을 기르는 시간을 가졌다.

### 여수YWCA

김예랑 간사

#### 온라인 추석 바자회

여수YWCA는 9월 1일(화)부터 7일(월)까지 '온라인 추석 바자회'를 진행했다. 바자회 성금의 일부는 북한어린이돕기 및 청소년 장학금 마련을 위한 것으로, 여수YWCA 회원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온라인 주문과 산지배송 등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바자회에서는 지역 살리기에 동참하고자 지역 견어물, 농산물, EM제품 등을 판매했다. 여수YWCA는 앞으로도 지역과 상생하기 위한 활동들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 익산YWCA

김다영 간사

#### '여성건강리더, 꽃중년' 프로그램

익산YWCA는 8월부터 여성의 생애주기별 영양 및 식사 지침과 운동요법을 통한 갱년기 증상 개선을 목적으로 '여성건강리더, 꽃중년' 사업을 운영했다. 운동요법(필라테스) 10회, 식이요법(요리실습) 3회로 구성된 프로그램으로 익산YWCA 강당에서 필라테스 수업을, 이영자요리학원에서 요리수업을 진행했다. 익산



YWCA를 알리고 여성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은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 전주YWCA

김은진 국장

#### 2020 젠더문화축제-미디어 속 젠더를 말하다



전주YWCA는 9월 14일(월)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2020 전북젠더문화축제 '너들목, 너의 목소리를 들려줘'를 운영했다. '미디어 속 젠더를 말하다'를 주제로 미디어 내 드러난 성평등 인식에 대해 알아보고, 성 고정관념에 따른 대사들을 성평등적 관점으로 바꿔 이야기해보는 장을 만들었다.

### 제주YWCA

박솔기 간사

#### 외국인 근로자 제주여행



제주YWCA는 9월 19일(토)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제주YWCA가 주관하는 외국인 근로자 제주여행 '제주도 좋아2'를 개최했다. 제주도 내 거주 또는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가족들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으로 액티브파크 체험, 레크레이션, 장기자랑 등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타국에 나와 있는 외국인들의 외로움과 고단함을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한다.

## 중부지역

### 논산YWCA

조은숙 주임

#### 청소년 재난안전 원정대



논산YWCA는 9월 11일(금)과 22일(화) 강경중학교 2학년, 건양중학교 1학년 1백 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재난영화를 감상하고, 자연재난 상황에서 초동대처 실패나 시민의식 결여가 사회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리고, 재난 상황 속에서 시민의식의 중요성을 함께 나누었다. 본 프로그램은 10월 중순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 대전YWCA

안소진 간사

#### 사단법인 발기인총회



대전YWCA는 8월 10일(월) 사단법인 대전YWCA발기인총회를 개최했다. 독립적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자치성, 투명성, 공공성, 책임성을 제고하여 YWCA목적에 기반한 지역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기 위한 시작이었다. 정혜원 회장의 법인설립취지 및 목적사업 설명에 이어, 원영희 연합회장의 격려사, 사단법인 대전YWCA 정관심의, 임원선출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 대전YWCA는 지방분권화 시대에 지역사회에서 책임 있는 시민운동을 이룰 것이다.

### 세종YWCA

양유정 간사

#### Y-틴, 대학·청년Y 동아리 인준식

세종YWCA는 8월 8일(토) Y-틴, 대학·청년Y 동아리 인준식을 진행했다. Y-틴, 대학·청년Y 회원, 세종YWCA 회장 등 30여 명

## 회원YWCA 소식



이 참석한 가운데, 여는 예배, 인준장 및 임명장 수여, 회원선서, 함께하는 시간 등을 진행했다. 키다리학교(청소년행복권), 이든샘(환경봉사), 아롱별(미술봉사), 늘숨(요리봉사), 도란도란(대학·청년Y)이라는 5개의 Y-팀, 대학·청년Y 동아리가 인준을 받았으며, 남경희 세종Y-팀 협의회장을 비롯해 동아리 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 제천YWCA 김미경 팀장

#### 초록환경교실



제천YWCA는 8월 18일(화)부터 20일(목)까지 초등학교 20명을 대상으로 '초록환경교실'을 열었다. 환경보호 실천을 위해 '재활용 양말목을 활용한 컵받침과 파우치 만들기', '재활용 유리병으로 조명등 만들기', 목장체험학습 등을 진행했다. 기후위기 상황 속에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들을 나누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부터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 천안YWCA 곽효정 간사

#### '착한소비운동'



천안YWCA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지역 자영업자 및 영농조합원들을 위해 '착한소비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수출 판로가 막힌 업체 및 지역 영농조합 제품, 친환경 제품들로 품목을 구성하여 '선주문 후배포' 형식으로 지역경

제 살리기에 동참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들과 30년을 동행해 온 천안YWCA는 '착한소비운동'으로 도움이 필요한 지역민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일에 앞장 설 것이다.

### 청주YWCA 한기연 간사

#### 에너지 절약UCC 공모전 시상



청주YWCA는 8월 20일(목)~21일(금)까지 에너지 절약 UCC 공모전 수상자에게 상을 전달했다. 이 공모전에서는 '아끼는 전기는 이제 그만 다가오는 친구가 바로 신재생에너지(조혜순 사천프리지오 생활지원센터장), '기후위기와 에너지 절약에 대한 영상'(전유경 대전보건대학원)이 1등으로 선정되었다.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에너지 절약방법, 재생에너지사용 홍보영상, 전기세 이렇게 절약하고 있어요!' 등을 주제로 공모전을 진행했다.

### 충주YWCA 이예림 간사

#### 즐거운 방학교실



충주YWCA는 8월 10일(월)부터 21일(금)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즐거운 방학교실'을 운영했다. 충주YWCA가 여름방학 기간 중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 프로그램을 진행해 돌봄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했다. 충주YWCA는 앞으로도 여성의 사회참여를 높이고 일·가정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들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 금연, 혼자서는 어려워도 병·의원 금연치료를 받으면 쉬워집니다!



08. 미국 보건복지부, 임상진료지침

## 국민건강보험과 함께하는 금연치료 지원사업



### 지원대상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

### 금연치료기관찾기



건강IN  
http://hi.nhis.or.kr 접속  
'금연치료 의료기관 찾기' 클릭

### 지원내용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니코틴 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 인센티브



금연치료 프로그램 이수 시  
신청한 경우 1~2회  
본인부담금 환급